



국립무용단
묵향

받은 편지함 03

오브제 05

농담濃淡이 품은 선비정신 김태희

칼럼 07

그래도 누군가 쓰고 있다 박찬일

SPECIAL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

공연 미리보기 10

익숙함에서 추출한 특별함 권태연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공생의 역사 12

서로의 자양분이 되다 송현민

작곡가 인터뷰 14

서사를 품은 관현악 송현민·김태희

VIEW

20 프리뷰 1

국립무용단 ‘묵향’

움직임의 황홀 김태희

28 프리뷰 2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추억은 선율을 타고 온다 이그림

30 프리뷰 3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보통 여인들의 고백 이단비

34 리뷰 1

국립무용단 ‘춘상春想’

무용극의 새봄을 연 생각 이지현

38 리뷰 2

국립국악관현악단 ‘2017 마스터피스-임현정’

진부함과 의 싸움 조세린

45 공연캘린더

46 국립극장 공연가이드

49 11월의 기대작

MIX | NTOK

- 세계무대 54**
뉴욕 브로드웨이의 티켓 전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것은? 이수진
- 시즌인문학 58**
‘홍보만보록’ 발견의 의미와 고전 읽기
문학, 시대를 품다 김경집
- 악기도감 62**
이용구의 단소·통소
바람길 따라 세상과 통하다 전윤희
- 고전의 재발견 66**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 ‘동백꽃 여인’
예술가를 뒤흔든 세기의 사랑 유형중
- 문화동반자 70**
고별공연을 앞두고
새로움을 위한 소통 다니알 와스티

- 72 예술배움**
외국인국악아카데미 수강생 코예요·실바
더 큰 울림을 기다리며 박효린
- 74 예술서적**
문예지 ‘영향력’ 외
가치 있는 발언을 위한 작고 단단한 의기투합 박사
- 77 국립극장 소식**
국립극장 공식 홈페이지 새 단장 마쳐 외
- 79 극장사람들**
국립무용단 총무 변승희
엄마의 마음으로 김태희
- 80 극:적공간 1973-2017**

「미르」는 국립극장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연예술 교양지입니다.
「미르」는 ‘용(龍)’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용처럼 힘차게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국립극장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르」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필자의 글은
국립극장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조인스 디지털가판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 **미르** 국립극장 월간 「미르」 2017년 11월호 Vol. 334
National Theater of Korea Magazine MIR | November 2017

표지 국립무용단 '목향'
표지 사진 전강인

발행인 김재숙(극장장 직무대리)
편집부장 하윤진 yjha94@korea.kr
편집팀장 박용완 parkyongwan@korea.kr
편집위원 이성남 proud40@ntok.go.kr
기획 및 편집 이주연 ljuyeon@korea.kr | 김태희 danse@korea.kr
사진 전강인 infp7@korea.kr
발행처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통권 334호
발간등록번호 11-1371032-000006-06 | ISSN 2287-6383
발행일 2017년 10월 26일
편집실 국립극장 홍보팀
전화 02-2280-5831 | 팩스 02-2280-4086 | 이메일 magazine@ntok.go.kr
편집·제작 오니트(주) 02-337-3690

국립극장 | 레퍼토리시즌

무향
안무 윤성주
연출 정구호

향연
안무 조흥동
연출 정구호

시간
평일 20시
주말 15시

장소
국립극장 | 해오름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2017
12.14(목)
|
12.17(일)

무향
향연
이것이 우리의 춤이다



SCENT OF INK

무향

2017
11.10(금)
|
11.12(일)



「미르」는 독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기다리다가 로비에 비치된 「미르」를 보고 꺼내 읽었습니다. NT Live 상영작을 소개한 기사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세 작품의 설명이 감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NT Live에서 만나게 될 공연에 대해 내용이나 출연 배우만이 아니라 연출과 무대도 집중해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수진 님(독자엽서)

이번 호 악기도감에서 타악기의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악기도 있고, 또 완전히 처음 보는 악기도 있네요. 이 신기한 악기들이 모두 국악 연주에 사용된다니 더욱 놀랍습니다. 다음번에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을 보게 된다면 맨 뒷 줄에 있는 타악 연주자들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성 님(이메일)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수업을 다룬 예술배움 기사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배움도 배움이지만, 직접 공연도 한다니 무척 부럽습니다. 예전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부채춤을 배웠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예술을 배우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난다면 전통예술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싶네요.

한정희 님(독자엽서)

「미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자엽서와 이메일(magazine@ntok.go.kr)은 물론 국립극장 홈페이지·네이버 매거진캐스트를 통해 공연에 대한 감상이나 국립극장과 「미르」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보내주세요. 글의 분량이나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12월 16일(토) 오후 3시 공연(1인 2매) 초대권을 드립니다.

※ 당첨자 연락을 위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완창판소리

9.23 | 10.21 | 12.31



THE COMPLETE PERFORMANCE OF PANSORI

유수정의 춘향가

9.23(토) 15:00

국립극장 | 하늘

허애선의 심청가

10.21(토) 15:00

국립극장 | 하늘

안숙선의

제야판소리 홍보가

12.31(일) 20:00

국립극장 | 달오름

예술감독 김성녀
해설 김기형

전석 20,000원

*12월 제야판소리 전석 3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농담^{濃淡}이 품은 선비정신

난초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장 길게 한 번, 그 옆에서 조금 더 밑단에 가깝게 한 번, 반대쪽으로 비스듬히 뺏어나도록 또 한 번, 양쪽에 짧은 잎을 몇 개쯤, 중간쯤 꽃대를 세우고, 그 끝에는 몇 개의 작은 꽃잎.

어릴 적 학교에서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아 붓털의 반쯤 먹을 묻힌 뒤 화선지에 선을 긋고, 정자^{正字}를 써내려갔습니다. 글자를 몇 번 쓰고 난 뒤엔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난초'였습니다. 난을 그리는 데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만은 중요합니다. 획을 그을 때는 호흡을 잠시 멈춰 '무^無'의 상태를 유지하지요. 추사 김정희는 유배 시절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난초를 그릴 때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난^蘭을 치다'라고 하는 이 과정엔 선비들이 사랑했던 식물에 대한 존중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안 머리에 두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군자의 선비정신을 읽어냈으니 말입니다. 난초의 기품은 우리 춤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묵향' 3장 속 남녀 무용수는 푸른 이파리와 그 사이에 돌아난 청초한 꽃의 조화를 절묘하게 그려냅니다.

글 김태희 | 그림 임희지 '묵란도'(국립중앙박물관)

TROJAN WOMEN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삼천 년 전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2017
11.22
—
12.03

일시
화·수·목·금 8pm
토·일 3pm

장소
국립극장 | 달오름

극본
배삼식

작곡·음악감독
정재일

연출
옹켄센 Ong Keng Sen

예술감독
김성녀

작창
안숙선

공동제작
국립극장
싱가포르예술축제

그래도 누군가 쓰고 있다

한국 소설가 F가 출판사의 초청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나라, 멀리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아니 존경하는 오에 겐자부로¹의 나라 아닌가. 한국 근대소설에 영향을 준 나라, 문학으로 노벨상도 복수로 받은 나라. 소설이 대단한 위상을 차지하는 곳에 갔으니, 나리타 공항에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어 있을 줄 알았다.

‘歡^환 한국 소설가 온사마, 아니 에프^{에프} 迎^영’

물론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는 작은 서점에서 팬 10여 명에 둘러싸여(?) 저자 강연을 했다. 그래도 팬이 있다는 게 어디며, 자신의 소설이 번역 출간됐다는 건 또 얼마나 영광인가 싶어 흐뭇했더랬다. 그래도 한국에서라면 기자들도 많이 오고, 팬도 구름 때는 아니어도 어지간히 오는지라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고 했다. 뒤풀이를 하는데, 그의 책을 출간한 회사의 홍보담당자가 아주 흐뭇하게 웃더라.

“역시 소설이라 이렇게 많이들 오셨군요. 시라면… 아휴 끔찍해라.”

시는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읽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고(전통시 하이쿠^{俳句} 시인이 더 유명하다고 한다), 소설가라고 해도 하루키 정도면 모를까, 특별한 인기를 누리기 힘든 곳이 일본이라는 얘기다. 이어서 담당자는 그 원인을 진단했다.

“역시, 일본은 이야기를 만들 줄 알면 만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화 시장이 엄청나게 크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이 순수문학에는 아무래도 발을 잘 들이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만화는 그림도 그림이지만, 스토리를 짜는 작가가 중요해서 양수점장인 만화가들 말고는 작가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인기도 별로인, 그나마 장르소설도 아닌 본격소설을 쓰기보다는, 그 소설을 만화에 쏟아붓는다는 해석이다. ‘먹고사니즘’, 나아가 흥행에 몰리는 유행 같은 게 존재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영화 시장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시나리오 한 편을 손에 쥐고 몰려들었다. 그 광풍이 지나가도 걱정(?)은 여전하다. 웹툰에, 게임 시나리오에 작가 후보생이 몰려간다는 탄식이다. 주로 소설과 시를 가르치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나 역시 용돈의 대부분을(실은 소주 값과 양분해) 소설과 시집 사는 데 쓰는, 인터넷 서점의 ‘골드프리미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회원인지라 그 탄식을 이해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소설 독자는 줄고 있으며, 특히 한국 작가의 작품이 고전 중이라고 한다. 매년 거액을 걸고 ‘엄청난’ 신인을 기다리는 문학상 응모작도 심사위원을 더는 흥분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겠지. 웹툰을 보면 정말 대단한 창조능력자들이 이 동네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손에 땀을 쥐는 반전과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가는 힘도 좋다. 서사도 훌륭하다. 현실은 이야기꾼을 배출하는 전통시장인 던 소설에 등을 돌리는 것일까.

얼마 전 책장에서 보지 않는 책들을 정리했다. 관심 분야였다가 이젠 시들해진, 시류에 안 맞는, 그냥 보기 싫어진, 다른 주인 찾아가는 게 나아 보이는 책을 골라냈다. 다음 날, 현관 앞에 내놓은 책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골라낸 책들은, 대부분 소설이었다. 한 인간의 모든 에너지가 압축된, 원래 없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만드느라(소설의 본래 뜻이기도 하다) 끝수까지 비틀어 짜낸 이야기의 기록들. 나는 그 책들을 다시 안고 들어오면서 버린 자식을 거두는 심정을 생각했다. 지금 누군가는 소설이라는 이야기 형식에 맞춰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의 밤이 환하기를 빈다.

글 박찬일 요리사다. 맛있는 음식도 다 자연이 있다고 믿어 맛있게 먹는다. 냄새 없는 소설도 그 긴 원고지를 매운 공덕을 높이 사서 끝까지 읽는다. 미련해도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일급 독자다.

SPECIAL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

10

공연 미리보기

익숙함에서 추출한 특별함

12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공생의 역사

서로의 자양분이 되다

14

작곡가 인터뷰

서사를 품은 관현악







공연 미리보기

익숙함에서 추출한 특별함

판소리 다섯 바탕의 흥미진진한 요소들을
90분 동안 새로운 스타일의 국악관현악으로 맛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창자가 고수의 장단에 맞춰 긴 서사를 소리와 아니리, 그리고 발림을 곁들여 구연하는 1인 음악극이다. 서민들이 모이는 판을 중심으로 구전되다가 근현대를 거치며 양식화됐다. 그 가운데 현재까지 전승된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를 다섯 바탕이라 한다.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어 계층을 가리지 않고 두루 즐긴 음악으로, 요즘으로 치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대중가요와 같은 장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2017-2018 시즌, 판소리 다섯 바탕을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선보이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를 준비하고 있다. 1995년 창단 이래 한국 창작음악의 장을 진취적으로 개척해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다양한 음악적 기반을 가진 다섯 명의 작곡가와 함께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이 공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판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관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판소리 갈라 콘서트’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보편성을 담아내되 차별화된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했다.

첫째, 판소리를 소재로 한 기존 국악관현악 공연의 경우, 주로 판소리



원대목을 그대로 부르면서 반주 부분을 관현악으로 편곡해 협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는 판소리 원대목을 중심에 두고 선율이나 노랫말을 새롭게 변형하거나 그 배치를 다르게 한다. 기존과 달리함으로써 흥미롭고 새로운 판소리 음악을 만들어내고자 함이다.

둘째, 음악적 개성이 뚜렷한 다양한 작곡가 중에서 판소리의 텍스트와 음악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작곡가들을 선정하고, 다섯 바탕의 서사적·음악적 특징을 고려해 작곡가와 각 작품을 적절하게 연결하려 했다. 작곡가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음악적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고유의 음악적 개성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판소리를 찾아내는 식으로 진행했다.

셋째,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악기 편성과 곡에 합류할 창자의 폭을 넓혀 관현악 사운드의 보편성을 담아내는 동시에 음악적 표현 범위 또한 넓혀 유연함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공연은 국악기로 편성된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첼로·더블베이스·트롬본·호른과 같은 서양 현악기와 금관악기를 추가한 편성으로 일반 관객에게 익숙한 관현악 사운드를 제공한다. 또한 전통 판소리 창자 외에 경기소리 창자·소프라노·테너·

중창단 등을 무대에 합류시켜 성악적 확장을 꾀하고 다양한 질감의 소리를 추구한다.

그동안 다양한 국내외 작곡가 및 음악가들과 함께 전통음악을 소재로 동시대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진보적 창작음악을 선보여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1인 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를 합주 형태의 국악관현악으로 재창조하고자 한다. 이 여정에는 국악 작곡가는 물론이요, 서양음악과 대중음악 장르에서 활약해온 작곡가들이 참여한다. 바로 강상구·서순정·이용탁·이지수·황호준이 그 주인공이다. 한 작품을 완창하는 데 짧게 잡아도 3시간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판소리. 그 다섯 바탕의 흥미진진한 요소들을 90분 동안 새로운 스타일로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11월 17일로 다가오고 있다.

글 권태연 국립국악관현악단 책임PD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

일시 2017.11.17(금) 오후 8시

장소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공생의 역사

서로의 자양분이 되다

이번 공연의 키워드는 ‘판소리’ ‘국악관현악’, 그리고 둘의 ‘만남’이다.
판소리와 관현악이 만나 어떤 역사를 일궈왔는지 살펴보고,
어떤 길을 개척할지 그려본다.

1965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창단하면서 창작국악에 여러 변화가 생겼다. 그중 하나는 다양한 장르가 생긴 것이다. 기본적인 관현악은 물론, 기악과 관현악이 함께하는 협주곡, 합창과 관현악이 함께하는 칸타타 등이 등장했다. 판소리와 국악관현악의 만남 역시 국악관현악이 탄생함에 따라 생겨난 장르다.

판소리와 국악관현악이 함께하는 연주 형식을 자리 잡게 한 이를 꼽자면 김희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7년, 즉 그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로 재직하던 때에 발표한 창과 관현악 ‘범피중류’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연주되는 명작이다. 판소리와 관현악을 접목하려는 작곡가들은 이 곡을 전범典範으로 삼거나, 참조하고 뛰어넘어야 할 전작前作으로 여긴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김희조는 거의 2년 간격으로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의 눈대목에 관현악을 붙인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이처럼 ‘창과 관현악’을 위한 레퍼토리가 이 시기에 급증한 이유는 여

러 가지가 있다. 일단 1980년대 초부터 전국 대학교에 국악과가 차츰 설치되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창작국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악관현악단도 속속 창립됐다. 그런데 국악관현악을 위한 레퍼토리가 보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단 붐이 일었기에 작곡가들은 이들을 위해 바빠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대중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설익은 편곡조차 작곡으로 인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소리와 관현악의 만남은 좀 이익을 보는 장사(?)였던 것. 선율을 뽑아내야 하는 고통이 따르는 것도 아니었고, 완성도 높은 선율에 짜임새 있는 관현악을 붙이면 되는 것이다.

어쨌든 김희조가 유행시킨 ‘창과 관현악’이라는 장르는 1980년대 들어 급물살을 타게 됐고, ‘창’은 판소리를 넘어 민요까지 아울렀다. 김희조는 ‘밀양아리랑’ ‘청춘가’ ‘태평가’ ‘방아타령’ ‘창부타령’ ‘뱃노래’ 등 민요도 관현악과 만나게 했다. 김희조에 의해 판소리든 민요든 관현악과 만나는 형식은 대개 비슷했다. 일단 원곡에는 없는 전주와 간주가 삽입

됐다. 관현악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대한 음향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관현악이 낼 수 있는 음역과 음정에 의해 창자의 청(음고)이 달라 지기도 했다.

그런데 국악성악에는 민속악 외에 가사·시조·정가 등 정악 계통의 음악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 민요를 채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음악 만들기에 주력한 김희조의 전력을 본다면 그에게는 민속악인 민요와 판소리가 좀 더 익숙했으리라 본다.

김희조의 '창과 관현악', 새 역사를 만든다

원래 '창과 관현악'은 전해 내려오는 판소리 가락에 관현악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의 판소리에 관현악을 '붙인다' 혹은 '입힌다'고 생각해 '작곡'이 아닌 '편곡'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판소리 가락을 차용한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를 생산할 때 편곡이라 해야 할지, 작곡이라 해야 할지 조용한 논의가 일고 있긴 하다. 여기에 어떤 절충안으로서 '재구성'이라는 말을 쓰거나, 아예 '작·편곡'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김희조의 '범피중류' 이후 '창과 관현악' 양식은 큰 의미를 던졌다. 그전까진 기악 협주곡이 협연 양식의 주를 차지했다. 협연곡 역시 기악 협주곡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창과 관현악'은 성악이 함께하는 장르가 국악관현악 역사에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희조가 창과 관현악을 위한 곡을 부지런히 내놓은 1980년대는 앞서 말한 대로 국악관현악단 창단 붐과 작곡가들이 활발하게 작품을 생산한 영향도 있지만, 전통예술 중 판소리에 대한 호응과 반응이 높던 때이기도 했다. 1968년, 5시간 20분에 걸쳐 '홍부가'를 완창한 박동진이 이듬해 국립극장에서 '춘향가' 완창 무대에 섰고, 1970년대 들어서 박초월·김소희·한승호·박초선·오정숙 등 많은 소리꾼이 완창 공연을 선보였다. 이른바 전곡 연주가 유행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음에도 판소리의 한정된 레퍼토리는 장르의 한계로 작용했다. 이러한 한계는 연행 방식의 다양화를 낳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판소리와 국악관현악의 만남은 그 대안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2~3명의 소리꾼이 각자 역할을 분배해 진행하는 입체창과 국악관현악의 만남은 판소리계와 관현악계를 동시에 풍부하게 만들었다. '동아일보' 1987년 3월 26일자 기사 '國樂^{국악} 현대화작업 활발'을 보면 김희조가 편곡한(당시 그의 작품은 대부분 '편곡'으로 분류됐다) '춘향가'는 "세 사람의 명창이 배역을 나눠 '춘향가'를 분창하고 여기에 56명의 국악관현악단이 반주를 하는" 식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공연이 관현악 반주로 음향의 폭이 넓어지는 데다 분창으로 판소리의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1990년대 이르러 판소리와 관현악은 기존의 판소리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소리꾼과 관현악단이 함께하는 '형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해 사설을 새로 쓰고, 곡을 붙였으며, 소리꾼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구성에 때로는 합창단이 함께해 거대한 교성곡 형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시인 김지하는 후천개벽과 낙원세상을 맞이하는 '대설 남'을 쓰고, 작곡가 김영동이 여기에 곡을 붙였다. 1993년에 세상의 빛을 본 이 작품에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 50명에 객원 연주자 30명, 합창단과 가무단 69명이 더해졌고, 박동진 명창이 협연자로 올랐다.

판소리와 관현악이 일구는 음향의 공간이 이처럼 확대됨과 동시에 시간적 확대, 즉 연행의 길이가 확장되는 일도 있었다. 같은 해에 열린 KBS국악관현악단 공연이다. 성장순 명창이 김세중제 '춘향가' 전 바탕을 부르고, 김희조가 편곡한 관현악이 함께했다. 그동안 '춘향가'의 눈대목만 관현악이 반주하던 것과 달리, 전 바탕을 관현악과 함께 완창한 이 공연은 역사상 최초로 판소리 완창과 관현악이 함께한 순간이다. KBS국악관현악단은 오늘날까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종중 정기연주회에 판소리 한 바탕을 선곡해 관현악과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이는 것. 물론 완창이 아닌 눈대목을 선별한 공연이다.

소리 중심에서 작곡가 중심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된 1995년은 이러한 유행이 어느 정도 지난 뒤다. 하지만 판소리와 함께한 이들의 역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창단 초기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창단 목적은 "국립극장 산하단체의 반주를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조선일보' 1994년 11월 14일자 '국립국악관현악단 올해중 창단/45명 규모 민속음악위주 편제')라는 것. 이에 따라 창극 반주를 도맡아 판소리와 함께 자양분을 나눠 먹으며 성장한 시간이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역사다. 따라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이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는 좀 다른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창작 방향이 남다르다. '창과 관현악'부터 진행된 작품은 대부분 명창들이 애창하던 눈대목 중심이다. 따라서 작곡가의 작곡 행위가 불는다고 해도 그것은 기존 판소리(눈대목)의 '확장'이지, 새로운 작품은 아니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 김희조의 작품은 이러한 점에서 '편곡'에 국한되고,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달리 오는 11월 선보이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는 작곡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상구('춘향가')·서순정('수궁가')·이용탁('심청가')·이지수('적벽가')·황호준('홍부가')에게 판소리의 가락은 김희조와 같은 선배들이 한 것처럼 올곧게 지켜내야 할 그 무엇도 아니고, 또 작곡가의 행위를 편곡으로 국한시키는 그 무엇도 아니다. 이들은 판소리를 이용하되 음악적 형식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 그 자유로움을 통해 '편곡 중심'이 아니라 '작곡 중심'의 판소리-국악관현악이 탄생하리라 본다.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음악을 듣고 글을 쓰며 부지런히 객석과 책상을 오가고 있다. 급변하는 음악 생태계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미래를 '기획'하는 자료가 된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곡가 인터뷰

서사를 품은 관현악

장르를 넘나드는 다섯 명의 작곡가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항해에 동참했다.
판소리와 국악관현악의 만남,
익숙한 듯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상구의 '춘향가'

전공인 국악뿐 아니라 뮤지컬·연극·무용·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판소리를 소재로 작업한 적이 있는지, 이번 작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합니다.

그간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업을 해왔고, 판소리를 소재로 하는 작업 역시 처음은 아닙니다. 2004년 3월, KBS국악관현악단 '판소리 콘서트'를 통해 '흥부가'를 선보였고, KBS가 기획한 '애니판소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우수 애니메이션에 음악과 소리를 입힌 것으로, 전주와 서울에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KBS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고 최용석·서정민·남상일·박애리 등이 작창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면 무엇보다 판소리의 원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선택한 판소리와 이를 소재로 한 이번 작품의 매력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선택한 판소리는 '춘향가'입니다. 연인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 시대를 막론하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젊은 연인의 사랑 이야기에 서정적인 선율을 엮어낸 국악관현악 작품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본래의 판소리에서 주목하는 '춘향의 절개'보다도 진정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켜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젊은 연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에 작곡한 해금곡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등을 들어보면 '서정성'이 본인의 음악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춘향가'의 눈대목을 서정적인 선율로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본인에게 서정적으로 다가온 '춘향가'의 대목이 궁금합니다.

여러 대목 가운데 몽룡이 광한루원에서 아침 풍경을 묘사하는 진양조 대목과 그네 타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방자를 보내는 대목으로 음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몽룡과 춘향이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사랑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며 부르는 오리정 이별 대목까지 주요 대목을 고루 담아보려고 합니다. 소리꾼 협연은 없지만, 관현악을 이루는 개별 악기의 하나로 소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의 영화음악처럼 '춘향가'의 전체 이야기가 유려하게 전개되는 음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순정의 '수궁가'

양악 작곡·국악 작곡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악관현악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현재 양악 작곡을 전공한 이들에게 새로운 표현 도구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국악관현악 연주나 소리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기본적으로 서양악기와 국악기는 악기의 구조와 음정·음계 등의 형성 과정이 다릅니다. 평균율에 익숙한 서양음악 작곡가에게 국악 작곡은 또 다른 도전이자 새로운 소리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서양관현악과 국악기의 협주 또는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앙상블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양한 시도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반복되고 새로운 작품이 많이 탄생해 연주자와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음악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서양음악 분야에서 활동한 저는 산조와 판소리를 들을 때면 기묘한 즉흥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듯한 색다른 기분을 느낍니다. 음을 가지고 한없이 자유롭게 놀다 어느새 장단으로 흡수돼 하나로 어울리는 음악, 장단에서 오는 우리 음악의 힘은 어떤 장르보다 강하고 중독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수궁가'를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한양대학교 조주선 교수와 '수궁가'의 한 대목을 서양악기 편성과 판소리 협연으로 공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수궁가'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네요. '수궁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에 빗대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풍자적인 판소리입니다. 다양한 캐릭터가 있다는 것은 많은 종류의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소리에선 창자가 홀로 모든 캐릭터를 표현하지만, 관현악에선 각 악기가 상황에 맞게 효과음을 넣어가며 전체 음악을 완성합니다. 재밌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에 새로운 옷을 입혀보자'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표입니다.

이번 무대에도 소리꾼 조주선이 함께하는데요. 소리꾼과 관현악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음악에 크게 두 가지 구성요소를 두었습니다. 기악적 스케치, 소리와 관현악의 어울림입니다. 우선, 수궁의 풍경을 기악으로 스케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용왕이 근심 걱정하는 장면과 토끼를 찢는 장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토끼의 변명이 줄줄이 이어지는 좌우나줄 대목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소리와 관현악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수궁의 풍경을 보여주는 부분에선 관현악의 독주 악기가 각각의 캐릭터를 맡아 이야기를 위한 선율과 효과음을 연주합니다. 이른바 바그너의 라이트



모티프(유도동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무대 위 모든 악기가 이야기의 구성원이 되고 관현악과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처럼) 일종의 '토끼환상곡'이라 불려도 좋을 작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리꾼 조주선의 청아한 음색과 관현악 속 타악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이 곡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지수의 '적벽가'



영화·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하는 가운데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여우락 영화관'을 함께 했고, 최근 국립창극단 어린이창극 '미녀와 야수', 국립무용단 '춘상(春想)'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한국적 소재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악관현악단과의 작업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번 공연은 잘 알려진 우리 판소리를 다섯 명의 작곡가가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새로운 관현악곡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영상과 공연 음악을 작업했던 경험을 살려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판소리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적벽가'를 서사적으로 그리는 동시에 역동성 또한 잘 살려보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적벽가'의 서사는 크게 삼고초려, 강능 피난, 박망과 싸움, 장판교 싸움, 군사 설움 타령, 적벽강 싸움, 화용도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취사선택했습니다. 특히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하면 매력이 더 돋보일 수 있는 내용을 골라 나름의 기승전결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음악을 완성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명확하고 선명한 레이어를 선호하고요. '적벽가'에는 대규모로 전투를 치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빠른 장단과 웅장하고 씩씩한 남성적인 소리를 잘 받치기 위해 호른·트롬본·더블베이스 등 선이 굵고 명확한 중저음의 악기를 국악기와 함께 사용합니다. 창극 '적벽가'에서 제갈공명으로 활약한 국립창극단 김준수 단원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적벽가'의 소재는 '삼국지'입니다. 한자와 고사성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대중을 향한 작업을 많이 해온 만큼 이번 작품에도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본 인간의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판소리를 바탕으로 새롭게 작곡하는 데 중요한 것은 관객이 음악만 듣고도 머릿속에 장면을 연상하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작품 본연의 요소는 고유하게 가져가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음악적 장치를 이용해 좀 더 명확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사실 '적벽가'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의 이야기가 중심축을 이루고, 전쟁에 지쳐 고향과 처자식을 그리워하는 인간적인 모습과 그와 대비되는 해학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또 전장의 비참한 상황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는 '적벽가'를 국악관현악으로 들으면 마치 짧은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호준의 '흥부가'

제비의 시점에서 '흥부가'를 풀어낸다고 들었습니다. 언뜻 '흥부가' 중 '제비 노정기'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시점이 달라지면 음악도, 서사의 흐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판소리는 소리꾼의 시점 즉, 3인칭 시점의 서사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1인칭 시점의 서사가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실감 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요. 이번 작품은 기존의 사설을 바탕으로 소리꾼에 의한 3인칭 시점과 제비의 1인칭 시점을 혼용해 새로운 사설을 쓰고, 소리와 관현악 부분을 작곡했습니다.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이야기 자체의 확장뿐만 아니라 관현악적 상상을 풍부하게 펼쳐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극·소리극·오페라·뮤지컬 등 노래와 함께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전에 국악관현악과 판소리가 함께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이번엔 차이점을 어디에 둘지 궁금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순신' '화무심청' '홍길동' '나비야 청산도 가자' 등 국악관현악 편성에 의한 창극 작품을 다수 작곡했습니다. 창극에서 국악관현악은 주로 반주의 역할이나 극의 흐름에 따른 장면별 배경음악으로 기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반면, 국악관현악이 반주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소리와 서사의 이면을 음악적으로 적극 드러내는 작업도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립국악원 '자연음향을 위한 국악관현악 레저콘서트'에서 발표한 판소리 가창을 위한 국악관현악 '범피중류'입니다. 이번 국립극장 무대에서 선보이는 '제비 날다'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생각한 음악적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판소리와 국악관현악의 만남에 경기소리가 가미됩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이번 작품의 출발점이 되는 '제비노정기'를 초연할 때, 판소리가 아닌 경기소리 가창자와의 협연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가창자의 존재를 통해 판소리의 음악과 서사 양식을 새롭게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경기소리의 음색을 고려한 새로운 관현악적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흥부가'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흥부가'는 조선시대 절대적 권위를 지닌 장자를 '강자·못된 형·놀부'로 설정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차자인 '약자·착한 동생·흥부'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기존의 권위와 가치를 비트는 풍자가 압권이라 특히나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본래 '흥부가'는 소리꾼의 현란한



재담을 바탕으로 놀부와 흥부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학적으로 펼쳐지는데, 이번 곡은 제비의 시점에서 또 다른 극적 정서를 구현했습니다. 때로는 국악관현악이 화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분적으로는 소리꾼의 소리조차 국악관현악 편성의 일부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작품이 판소리 서사 양식의 관현악적 재해석이라는 음악적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용택의 '심청가'

국립창극단 '청'을 비롯해 여러 창극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극과 이번 공연은 소리와 (대·소규모의) 관현악이 함께한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왜 '심청가'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심청가'는 무척이나 애정이 가는 판소리입니다. 2006년부터 6년간 국립창극단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며 판소리 다섯 바탕과 창작극을 작·편곡해 무대에 올렸는데, 창극 '청' 역시 '심청가'를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다섯 바탕 가운데 '심청가'와 '춘향가'에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중 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그린 '심청가'는 우리 민족의 '효'를 주제로, 무한한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에서는 토막창극 '심청가'를 소리꾼과 성악가(소프라노·테너), 4부 합창이 어우러진 풍성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선보입니다. 눈대목으로 꼽히는 '닭아닭아 우지마라' '이 내 팔자' '인당수' 등 네 부분을 작·편곡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을 비극적인 황홀경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판소리 원전을 그대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한 변형을 가해 판소리 '심청가'를 잘 아는 관객도, 처음 접하는 관객도 색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작곡가들은 대체로 한 명의 소리꾼과 함께하는데, 본인의 '심청가'에는 소리꾼 김지숙과 중창단, 소프라노와 테너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악가를 출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악가가 판소리 대목을 부른다는 점이 이번 작업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판소리의 시김새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판소리와 성악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결 편안하고 신선한 느낌의 판소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자와 고사성어로 되어 있는 노랫말은 오늘날의 감각에 맞게 고치고, 서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지휘도 하십니다. 다섯 명 작곡가가 제각각의 개성으로 만든 다섯 곡을 들려주기 전에, 이번 공연이 판소리를 동반한 여타 공연과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는 우선, 기존의 국악관현악 편성에 서양악기를 추가로 배치해 음악적으로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음악가들이 소리를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소리꾼 조주선·김지숙·최수정·김준수가 협연자로 나서며, 성악가와 중창단이 참여합니다. 이를테면 국악과 양악의 앙상블이랄까요. 이 무대에서 선보이는 다섯 작품 중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을 토대로 판소리에 관현악 반주를



붙인 작품도 있고, 창극이나 오페라 형식을 띠는 작품도 있습니다. 판소리의 주제를 장엄한 관현악으로 재해석한 경우도 있고요. 창극·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와 갈라 콘서트 형식을 융합한 새로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송현민 음악평론가
정리 김태희 국립극장 홍보팀 | 사진 전강인

VIEW

20

프리뷰 1

국립무용단

‘묵향’

28

프리뷰 2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30

프리뷰 3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34

리뷰 1

국립무용단

‘춘상春想’

38

리뷰 2

국립국악관현악단

‘2017 마스터피스-임현정’

움직임의 황홀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선비가 무대 위를 향해 붓을 든다.
붓놀림 한 번에 봄의 감탄사가 펼쳐지고,
또 한 번에 금빛 물결을 이루니 춤이 황홀하게 피어오른다.





서무

화선지 네 폭이 걸리고, 먹을 듬뿍 적신 붓끝으로 흘려 쓴다.
더블베이스 선율이 군자의 등장을 암시하고, 거문고는 대점을 내리치며 기개를 북돋운다.
순백의 여명을 걷고 나타난 열 명의 남성, 하얀 도포 자락 휘날리며 사군자의 세계로 이끈다.



매화^梅

얼어붙은 겨울을 깨고 틔운 꽃망울, 움직임에 응축한 진분홍 꽃잎에서 아름다운 색이 툭툭 터져 나온다.
아정한 여창의 돌림노래는 '화편'을 읊고, 아찔한 상청으로 여성의 춤사위를 고아하게 만든다.
섬세하게 발아한 손끝의 움직임은 꽃잎 그 자체가 되어 아득한 향기로 퍼져나간다.



난초^蘭

창창한 기품이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려와 무대 전체를 진초록으로 채운다.
 굳센 기질의 거문고가 중심을 잡고, 가야금의 아리따운 가락이 함께 노닐며 4중주를 이룬다.
 난을 치는 군자와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난초, 연인인 듯 춤사위가 서로를 밀고 당긴다.



대나무^竹

사시사철 푸르기보다 자신만의 색을 간직한 오죽,
호방한 바람 소리에 풍성함을 더하는 청의 떨림,
대금의 자진모리장단이 한껏 올려 세운 발끝에 실려 호흡을 몰아간다.
두 손에 쥔 장대는 장수에겐 창, 문인에겐 붓일 터다.
공기를 가르며 달음박질과 도약,
바닥을 내려치는 장대의 탄성이 강약을 맺고 끊는다.



국화^菊

인내 끝에 들핀을 금빛으로 물들인 오상고절.
 바람이 훑 불어오니 가느다란 줄기가 휘청 흔들린다.
 애절한 해금의 떨림이 늦가을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우면서도 까칠한 음색을 드러낸다.
 무언가를 찾아 헤매듯, 야속한 세월을 원망하기라도 하듯,
 이어지다 꺾이고, 이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려한 춤사위.





종무

한껏 짙어진 목의 향기. 어둠 속 한 떨기 꽃을 이룬 여성들의 움직임이
가야금과 바이올린 선율에 녹아들어 무대를 누빈다.
국악기와 양악기의 오묘한 공존 속에 남성들이 등장하고,
휘모리장단에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화려히 종지부를 찍는다.

글 김태희 국립극장 홍보팀 | 사진 전강인



국립무용단 '묵향'

일시 2017. 11. 10(금)~12(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PREVIEW

추억은 선율을 타고 온다

묘한 끝림을 선물하는 ‘한정판’부터 애호가를 사로잡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언제 들어도 좋은 ‘기본 아이템’까지. 단아함으로 치장한 11시의 무대가 손짓한다.

패션계는 해마다 두 번 패션쇼를 열어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의상과 소품을 소개한다. 유행을 선도하는 이 쇼의 궁극적인 목적은 쇼에 선보인 의상이 많은 사람에게 선택되게 하는 데 있다. 공연계도 해마다 다양한 공연을 끊임없이 올린다. 안타깝지만 단 한 번의 기획으로 사라져버리는 공연도 있고, 장기 흥행을 예약하는 작품이 탄생하기도 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 브런치 콘서트 ‘정오의 음악회’가 9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것도 대중의 선택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7년 마지막 ‘정오의 음악회’가 준비한 컬렉션을 살펴보자. 언제 들어도 좋은 ‘기본 아이템’이 공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다. 공연의 문을 여는 ‘음악견문록’ 순서에서는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 왈츠가 준비돼 있다. 20세기 초, 클래식 음악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작곡가들 사이에서 일어났

을 때, 즉흥적 리듬에 자유로운 변주가 가능한 재즈는 사랑받는 장르였다. 쇼스타코비치 또한 이 시기 재즈에 관심을 가졌고, 1938년 이 곡을 발표한다.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마지막 영화 ‘아이즈 와이드 섯’ (1999), 김대승 감독의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2001), 그리고 각종 CF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며 대중적인 클래식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는 언제 들어도 좋은 ‘관현악 명곡’이 기다리고 있다. 몽골의 대자연과 민족성을 담아낸 B.샤라브의 ‘깨어난 초원’과 M.비르바의 ‘말발굽 소리’를 국악관현악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두 곡은 2012년 국립국악관현악단과 몽골국가대합주단이 양국 우호의 의미를 담아 합주한 ‘초원의 소리’ 공연에서 국내 초연된 작품이다. ‘깨어난 초원’에는 황량한 초원이 사람들이 왕래함으로써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몽골 민족의 열정과 행운을 주제로 하는 ‘말발굽 소리’는 몽골 리듬으로 말발굽 소리를 표현하는데, 한국 전통장단인 자진모리와 휘모리장단과 비교해 들어보면 더욱 흥미롭다. 작곡가 계성원(‘깨어난 초원’)·박한규(‘말발굽 소리’)가 각각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 사랑받는 국악관현악 명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꼭 들어야 하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해금 협주곡 ‘활의 노래’다. ‘기악 협연곡’ 순서에서 만날 수 있다. 해금은 예민하면서도 변화무쌍한 악기다. 해금 연주자는 오른손으로 활대를 잡고 손가락을 이용해 활대에 붙어 있는 말총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연주한다. 말총을 잡아당긴 강도가 음색에 영향을 미친다. 왼손은 어떠한가. 연주자가 볼 때 앞줄은 유현, 뒷줄은 중현이라 하는데, 이 두 줄 위에서 왼손의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줄의 장력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음정과 기법을 표현해낸다. 12음에서 미분음까지의 음정은 물론이고, 농현의 폭과 장식음의 정도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해금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해금을 두고 작곡가 이



가수 최백호



정면은 “가냘픈 두 줄에 기대어 세상의 모든 음이, 소리를 품으려는 듯 나에게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그가 작곡한 ‘활의 노래’는 해금을 통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곡이 아니라 해금을 이야기하는 곡이다.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글리산도 기법과 음을 눌러서 부드럽게 연주하는 기법, 높은 음역을 스치듯이 연주하는 하모닉스 기법 등 해금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연주기법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관현악의 웅장함 속에 독주 해금이 표현하는 선율이 노래하듯 이어지고, 절정의 카덴차는 극적인 재미를 선사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 서은희 단원의 연주를 통해 해금의 매력을 만끽해보자.

‘전통의 향기’ 순서에서 이용구 단원이 선보이는 ‘추산 전용선류 단소 산조’는 이번 컬렉션의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단소는 물론이고 대금·통소·피리 등 여러 악기를 잘 다룬 추산^{秋山} 전용선 명인은 풍류 음악에서 주로 연주하던 단소의 산조를 만들었다. 단소는 산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음, 조의 변화, 시김새 등을 연주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 명인은 단소 앞면에 있는 네 개의 지공을 모두 사용하고 손가락 끝을 이용해 지공의 반 혹은 3분의 1을 막으며 여러 음을 만들어냈고, 호흡을 조절해 다양한 시김새를 표현하는 등 악기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단소 주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가락을 만들어낸 명인의 예

술성에 탄복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명인의 단소 산조는 맥이 끊겼지만, 그가 남긴 짧은 녹음이 이용구 단원에 의해 재구성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산조가 가진 구성진 성음이 맑고 부드러운 단소의 음색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해봐도 좋다.

마지막으로 한정성이 주는 묘한 끌림이 매력적인 ‘한정판’이다. ‘이 음악이 좋다’에서 만나는 가수 최백호의 무대가 이에 해당한다. 1977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로 데뷔한 최백호는 ‘낭만에 대하여’ ‘일몰’ ‘낙엽은 지는데’ ‘고독’ 등을 발표해 인기를 얻었다. 이번 공연에선 데뷔 40주년을 맞아 올해 발표한 기념앨범 ‘불혹’의 수록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백호에게는 ‘추억 스페셜리스트’라는 별명이 있다. 그는 국악관현악과 만난 이번 무대에서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전해줄 것이다.

글 **이그림** 방송작가. KBS ‘국악한마당’으로 방송작가 일을 시작했다. TV·라디오·공연 등 전통 예술이 있는 곳에 고운 색을 더해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싶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일시 2017. 11. 22(수) 오전 11시
장소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PREVIEW

보통 여인들의 고백

코러스 8명 각각에게 ‘보통 트로이 여인’의 옷을 입힘으로써 이 창극은 비극의 세계를 더욱 확장한다. 평범한 그 여인들을 가상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다.

전쟁의 기록은 늘 승자의 시선에서, 권력자와 명망 있는 자들의 이야기로 서술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트로이의 왕비인 헤큐바와 그 딸 카산드라 및 며느리 안드로마케의 처절한 고통을 전면에 내세운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시도는 참신했다. 트로이 전쟁 신화에서 직접적으로 감각되지 않던 패전국 여성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부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큐바와 카산드라 등도 역시 왕족이라는 특수한 계층에 속한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평범한 여인들의 비극은 또다시 묻혀버리기 마련이다.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의 대본을 쓴 극작가 배삼식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발언할 기회조차 없었던 가장 낮은 계급의 여인들에게도 시선을 던지며 ‘트로이의 여인들’에서 ‘여인들’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고귀한 왕족의 시선이 아닌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의 시선이 새로움을 더한다.

패전국 여성 혹은 노예로서, 지금까지 소외돼온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필자는 시공간의 제약을 해제한 가상 인터뷰를 진행해 봤다. 바로 어제, 적국의 침입에 맞서 10년간 굳건하게 버텼은 트로이가 함락됐다. 한때 찬란했던 이 도시는 불길 속에서 폐허가 됐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남아 있는 여인들의 탄식뿐이다. 이 인터뷰는 이들이 적국의 노예로 끌려가기 직전, 그 마지막 시간에 대한 기록이다.(이들의 대답은 대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트로이가 함락당한 광경을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아플 것 같다.

코러스1 트로이가 무너졌다고 유난스레 굴 거 없다. 진작 무너졌어야 지. (쓴웃음) 이 작은 성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를 삶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헤큐바야 절규하겠지. 하루아침에 왕비에서 적국의 노예로 전락했으니. 하지만 내 삶은 지금이나 이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어차피 우리 같은 노예들은 이 땅에 속하지도 않으니깐.

코러스2 무슨 소리냐. 정든 집이 불타고 부모 형제 죽은 것도 서러운데,

고향 땅마저 떠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고 두렵다.

코러스7 난 사실 이들과 출신 성분이 다르다. 궁에 과일을 납품하면서 돈도 벌고 풍족하게 사는 중산층이었지, 절대 노예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한 목마 하나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스의 노예가 되다니. (한숨)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니 무너져내린 내 삶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모두 전쟁 포로가 되면서 노예로 전락한 것인가?

코러스3 아니, 난 노예의 딸로 태어났다. 내 부모는 평생 성 밖 마을에서 일만 하다가 허리가 굽으셨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항상 가난에 허덕이셨다. 지금은 생사조차 모른다. 내가 배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다.

그렇다면 이 지옥이 누구 탓이라 생각하나?

코러스4 권력자들, 가진 자들의 욕망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난 후의 상황만 봐도 그렇다. 모두가 살겠다고 성안으로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결국 입성하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더라.

코러스5 맞아. 정작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도망치는데, 누구는 말굽에 밧혀 죽고, 바퀴에 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지 않나. 심지어 창칼에 찔리기도 부지기수다.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지옥이 또 어디 있을까?

코러스8 아니, 꼭 귀족들 탓만 할 수 없지. 이 모든 건 전부 헬레네, 그 년 탓이지. 파리스를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정말 속상하다. 헤큐바의 친척인 내가, 귀족인 내가 이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다니.

코러스7 (끄덕인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헬레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전남편 메넬라우스를 다시 꺾어서 결국 이 땅을 유유히 벗어나다니. 정말로 기가 찰 일이다!

코러스4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걸 잃고 이렇게 우는데 헬레네는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고 떠나다니. 어쩌면 저렇게 웃으며 떠날 수가 있는지!

트로이를 떠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는가? 미래가 그려지는가?

코러스8 이왕에 노예로 끌려가는 거라면, 아티카로 갔으면 좋겠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들었다. 심지어 노예들한테도.

코러스7 난 어딜 가든, 그게 스파르타만 아니면 된다. 스파르타로 끌려갔다가는 헬레네의 그 추잡한 꼴을 계속해서 봐야 할 테니까.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를 모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코러스2 지체 높으신 당신 둘은 그래도 미래를 걱정하네. 지금 똑같이 노예가 된 상황 속에서 누구는 앞날을 걱정하고, 누구는 생각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잖아. 우린 여전히 다른 건가? (쓴웃음) 당신들은 왕비 겔

에서 수발을 들 자격이 있으니, 트로이를 떠난 후에도 우리보다 나은 대우를 받겠지. 미래라는 것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나 꿈꿔볼 수 있는 거다.

코러스 3 맞다. 내게 미래 같은 건 없다. 난 오래전부터 노예로 살아왔다. 트로이를 떠난다고 내 처지가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어차피 지옥이고, 어딜 가나 지옥은 마찬가지다. 내 처지에서 바뀌는 건 기껏해야 날 부리는 주인뿐이다.

그래도 행복한 순간도 있지 않았나?

코러스 2 있었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트로이가 무너져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지.

코러스 5 (끄덕인다) 어제 아침에 들판 위에 남겨진 그 거대한 목마를 바라볼 때만 해도, 솔직히 들떠 있었다.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

코러스 6 그런데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목마에서 뛰쳐나온 건 악마들이었다! 사내라면 모조리 죽였다. 늙은이도,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코러스 2 우리와 행복한 순간을 나누던 소중한 이들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다. 난 이곳 트로이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붉은 실타래 속에 묶어둘 것이다. 그리고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실타래를 풀어내고 되감으며 행복했던 어제를 회상할 것이다.

트로이의 여왕이던 헤큐바를 막상 옆에서 지켜보니 어떠한가?

코러스 4 헤큐바는 늘 저 위에 있었다. 이 왕궁처럼 견고하고 높았다. 그런데 어느새 그분도 우리와 같은 곳에 서 있다. 어쩌면 우리가 강인해져서 그 옆을 지키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코러스 8 왕비 헤큐바도 남편과 자식을 잃었고, 그 머느리 안드로마케도 어린 생명을 빼앗겨버렸다. 아버지 헥토르의 방패 아래 죽어 잠들어 있는 아스티아낙스의 시체를 바라보자니 측은한 마음이 가득하다.

코러스 6 왕가의 비극을 바라보며, 고통은 저들이나 우리나라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늘 왕비 곁에서 웃음을 파는 광대에 불과했던 나지만, 이제는 헤큐바의 두려움 속에서 내 두려움을 일깨우게 된다. 이 모든 것도 결국 인간이 저지른 과오가 아닌가. 몸이 오싹해지며 컷전에 자꾸만 ‘우매愚昧’라는 말이 맴돈다.

코러스 1 이 세상도, 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헤큐바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 똑같이 남편을 잃은 아내로서의 연민인지, 자식을 잃은 어미로서의 연민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같은 여자로서의 연민일지도 모르겠다. (정적) 하지만 헤큐바는 끝까지 버텼다. 그 곁에서, 노예에 불과하던 우리들도 어느새 ‘트로이의 여인들’이 돼 버렸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하찮은 나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보다.



글 이단비 영미권 및 독일어권 희곡을 번역하며 연극·뮤지컬 등의 드라마투르기로 활동 중이다.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싱가포르 공연 당시 통역으로 동행했다.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일시 2017. 11. 22(수)~12. 3(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REVIEW 국립무용단 춘상^{春想}

무용극의 새봄을 연 생각

이번 시도는 새로운 무용극을 향한 국립무용단의
썩썩한 행보 속에 의미 있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춘상^{春想}'이 '무용극의 봄'과 같은 신선한 생각이 되는 이유다.
2017년 9월 21~24일 | 해오름극장



원로 무용가 배정혜와 정구호가 만나 국립무용단 '춤, 춘향'(2002)을 '2017년판 모던클래식 춘향'으로 만든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다. 2017-2018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개막작 '춘상春戀' 포스터를 보면, 정구호의 미니멀한 색상과 현대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깔끔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단순한 기둥과 벽으로 구성된 공간에 앉거나 서 있다. 언뜻 보기에 사이보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단순하고, 제거된^{eliminated} 장면을 통해 이 작품이 뭔가 기존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자극했다.

무대가 열리자 탄성이 나왔다. 파스텔 색감이 펼쳐진 깔끔한 무대에 강렬한 재즈 선율이 울려 퍼지는 절정의 파티장이 젊음의 한복판임을 실감나게 했다. 음악감독 이지수가 말한 이번 음악의 초점은 "무용의大本은 음악이다. 감각적인 음악만이 무용수를 춤추게 할 것 같았다"였고, 이 의도는 확실히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무용수들은 음악이 나오면 신명의 버튼을 누른 것처럼 예열 없이 춤의 온도를 상승시켰다. 관객은 단도직입적인 느낌 속에 자세를 바로잡으며 장면 안으로 빨려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첫 장면 '축제'는 어느 춤 작품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강도 높은 도입으로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이지수는 불빨간사춘기·어반 자카파·선우정아·아이유·넬 등의 최신

대중음악을 편곡해 여덟 장면의 음악으로 재탄생시켰다. 정구호 연출이 배정혜 안무에게 100여 곡을 제안했고, 그중에서 안무가가 8곡을 골랐다. 한국춤 원로는 조안무가의 몸을 빌려 40대 이상은 알기도 어려운 최신가요를 바탕으로 춤을 만드는 "평생 가장 힘든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축제·만남·환희·갈등·이별·좌절·재회·언약의 8개 장면은 거의 균등하게 배열된 음악의 틀 안에 존재한다. 이 작품은 매우 신선한 시도를 담고 있음에도 장면이 거듭되며 반복되는 구조적 단일함이 느껴지는데, 연출이 이러한 부분을 놓친 결과로 보인다.

사실 가요를 편곡해 사용하는 것은 뮤지컬에 익숙한 방식이다. 음악의 형식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편곡하지 않고 뮤지컬풍에 머물게 한 것이 이번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했다. 춤추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음악의 단순한 결이 결국 춤을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안무가 혹은 안무팀의 역할이 아쉽다. 원로 무용가는 현대적 음악에 맞게 직접 동작을 만들기보다는 안무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젊은 감각은 조안무가나 다른 무용수들과 함께 찾아나갔을 것이다. 춤이 중심이 되는 작품에서 안무가 춤을 위한 음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찾아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정인데 이를 놓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 식의 새로운 무용극이란

2013년 안성수와 정구호의 '단'은 국립무용단이 현대무용가를 초빙해 단체의 현대화 작업에 획을 그은 시도였으며, 그 파장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도저히 버릴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신무용 세대의 안무 방식으로부터의 신선한 탈피는 국립무용단으로 하여금 대극장 무대를 메우는 새로운 방식에 눈뜨게 했다. 내 판단에 '목향'(2013)은 국립무용단이 시도하고자 한 '네오클래식' 내지는 '모던클래식'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갖춘 작품으로, 현대화 작업에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그 후로도 이 같은 흐름을 줄기차게 이어간 국립무용단의 기획은 이제 무용극으로 옮겨져 또 다른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리진'(2017)에 이어 '춘상春想'(2017)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선 국립무용단이 표방하는 '모던클래식 무용극'이라는 개념을 보면 사실 좋은 걸 다 가져다 만든 합성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에게 '고전classic'은 무엇일까? 춤에서 '고전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목향'은 엄밀한 의

미에서 우리의 형식적 고전인 '궁중무'의 원형을 찾아가 그 향기를 가장 근접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고전무용은 서양의 고전발레와 궁중에서 태어난 것은 비슷하나, 대중의 사랑을 널리 받지 못하면서 고전주의로 완성되지 못한 채 형식적 고전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그런 이유로 고전무용은 오래 품미되지 못하고 무용의 일부분으로 축소됐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민속춤이 '전통무용'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우리의 고전인 양 자리를 메웠다. 전통무용에 신무용까지 포함돼 있는 혼재의 상황은 우리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립무용단이 이번 작품에 대해 '네오클래식'(모던클래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을 추구한 것까지는 방향을 잘 잡았다. 우리 춤의 정수에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단어가 '무용극'과 붙어서 탄생한 '네오클래식 무용극'은 몇 가지 모순을 안고 있다.

유럽의 고전발레는 국가적 지원 속에서 전막극 형식의 발레로 완성됐고, 그에 걸맞은 무대기술과 춤의 어법을 갖추며 하나의 규범이 됐다. 그리고 드라마를 빼고 형식적 아름다움만 부각한 '신-고전주의'는 발



레의 새로운 사조로 흘러갔다.

이와 비교해볼 때, 우리 고전무용엔 애당초 드라마가 없었다. 궁중무용이 형성된 고려 때부터도 춤은 드라마가 사라진 채 형식에 매우 공을 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오히려 국립무용단이 창단된 1960년대부터 독일과 일본의 표현주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무용극이 매우 현대적인 시도였던 것은 맞다. 1960~1970년대 형식인 무용극을 좀 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것이 아닌 새로운 무용극’을 언급하기 위해 ‘클래식(고전무용)’과 ‘네오(신斷)’ ‘무용극’을 모두 가져온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오히려 신무용 계열의 무용극을 다시 말하는 것이 돼버렸다. 그저 ‘신-무용극’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 무용극의 뿌리는 굿과 탈춤 등 우리 민속에 있던 제의적 형식에 풍부하게 녹아 있다. 그것을 훌쩍 빼고 1960~1970년대 무용극에만 개념을 한정 짓는 것은 짧은 시선으로, 무용극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새로운 무용극을 창조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역사와 현재를 잇는 훌륭한 기획

‘춘상春想’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약함에도 무용극의 무대장치와 의상이 매우 새로웠고, 대중가요를 음악으로 쓴 것도 신선한 시도였다. 또 우리 춤을 평생 고민해온 원로 무용가를 초빙해 대중이 좋아할 춤을 만들겠다는 기획도 상당히 훌륭하다. 대중이 신뢰를 갖고 무대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을 뮤지컬 분위기로만 한정한 것은 대중의 취향에 쉽게 편승하려 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우며, 춤에는 음악의 규정성을 시원하게 탈피하는 과감한 안무가 없다. 후반부에 나타나기 시작한, 배정혜 선생의 바기본으로 완성한 발춤·머리채춤이 더 집요하게 무용극 구조의 한 축으로 꽃피지 못하고 뮤지컬 안무와 비슷한 선에서 끝난 것이 아쉽다.

그럼에도 ‘춘상春想’의 시도는 새로운 무용극을 향한 국립무용단의 연이은 씩씩한 행보 속에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춘상春想’이 ‘무용극의 봄’과 같은 신선한 생각이 되는 이유다.

글 이지현 춤비평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다. 월간 ‘춤과 사람들’을 통해 등단, 월간 ‘몸’, 한국춤비평가협회 ‘춤웹진’에 비평을 실고 있다.

진부함과 의 싸움

어려우면 난해하다고 외면받고, 쉬우면 쉽다고 질타받는 게 창작음악회다. 그리고 숙명과도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는 음악인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2017년 9월 28일 | 해오름극장

오케스트라처럼 ‘비싼’ 노력이 드는 연주회는, 그것도 특별히 새로 위촉된 창작음악 전곡으로 채워진 연주회라면 그 공연장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이다. ‘새로운 음악이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는 기획자·작곡가가 자아낸 긴장감이다. 사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듣기 편하면 편한 대로 칭찬보다는 질타가 더 많은 게 창작음악회다. 게다가 ‘현대음악은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제작자가 홍보 마케팅에 얼마를 투자하는 일반 관객은 창작음악을 듣기 위해 공연장으로 달려가지는 않는다.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이들의 흥미를 끌고 작곡가가 들려줄, 대체로 익숙지 않은 음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오늘날 전통 레퍼토리 반복의 진부함과 싸우고 있는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들은 그들이 노력하는 실험성의 수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 세대’는 음악 산업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아이튠스와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은 ‘음악은 이것’이라는 고정된 콘셉트를 만들고, 그 틀 안에 예술을 가두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예술의 대중화와 소셜미디어에서 비롯한 피드백의 수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대중주의 혹은 대중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클래식 음악·재즈·국악 등의 장르도 ‘K-브랜드’에 편승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드러낸다.

국립극장은 2017-2018 시즌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는 제작과 운영에 깊이와 정교함을 더해 전통에 기반을 둔 한국 예술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중략) 전속단체의 신작들은 더욱 도전적이고 레퍼토리 작품들은 한층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미션의 일환으로 기획된 ‘마스터피스’ 프로젝트는 한 해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그간 높이 평가받은 수준 높은 곡들을 재조명하거나, 그 공연을 위해 위촉된 작품을 초연하는 연주회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창작음악을 이끄는 혁신을 만날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올해 공연은 ‘일반’ 관객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한발 물러선 듯 느껴졌다. 비유하자면 소화가 쉬운 부드러운 흰 빵 두 쪽 사이에 누구나 즐길만한 베이컨과 채소를 채운 샌드위치 같은 느낌 이랄까. 갖김치는 없었다. 밥 없이 먹기엔 맵고 짜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인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기량을 우선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 눈엔 모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비즈니스적 기획으로 보였다.

나는 클래식 음악에 둘러싸여 자랐고, 17세부터 동아시아 음악을 듣기 시작해 22세부터 국악을 연주했다. 그리고 29세부터 10년간 알래스카에서 현대음악축제를 기획했다. 또한 매년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가 열



리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이 청중으로 가득 차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국립극장이 외국 작곡가들에게 위촉한 국악관현악 '리컴포즈'(2014) 연주회의 짝 찬 객석과 관객의 열기를 기억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국악과 클래식 음악·현대음악을 경험했으며, 연주자와 기획자 그리고 관객의 다양한 입장에서 음악을 접해온 사람으로서 고백하건대, 이번 '마스터 피스' 샌드위치는 완벽하게 서빙됐지만 내 배를 채우진 못했다. 이 연주회는 '동근달' '옥수수 하모니카' '자전거' '고향의 봄' 등 매우 익숙한 동요를 계성원이 편곡한 '동심의 세계'로 시작했다. 나무랄 데 없는 구성이지만, 이 곡은 곧이어 연주될 현대음악의 타격에 대한 쿠션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도널드 워맥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흩어진 리듬'으로 느껴졌는데,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긴 이 곡이 공연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작곡가이자 교수인 워맥이 한국악기를 위해 쓴 초기작들은 구조적으로 훌륭하지만 한국적이라는 느낌을 온전히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행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수차례 참가하고, 한국악기(특히 가야금)를 위한 작품을 16곡 이상 완성한 워맥은 '흩어진 리듬'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했다. 가야금 명연주자 이지영과 함께한 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

미국 작곡가 워맥의 매력적이고 새로운 국악곡

'흩어진 리듬'은 종묘제례악의 녹색 축꼴을 떠올리게 하는 리듬으로 시작한다. 리듬은 대북으로 옮겨간다. 산조에 바탕을 둔 작품이 그러하듯 장구가 그 뒤를 잇는다. 워맥은 산조에서 영감을 얻은 최초의 작곡가는 아니지만, 한국음악과 국악관현악의 핵심인 산조의 리듬을 부각하며



독창적인 작품으로 발전시켰다. 동시에 리드미컬한 긴장감과 한국 장단에서만 연상되는 반복적 헤미올라로 자신만의 고유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첫 번째 악장 '북소리가 하늘 너머로 울려 퍼지네'에서 위맥은 가야금 산조의 흥미로운 화성을 추출해냈는데, 그 휘어지는 지점들은 형식면에서 무척 매력적이었다. 그는 전통적이지 않은 튜닝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소리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 악장의 마지막 순간, 음악의 흐름은 천국을 향해 떠난다.

2악장 '하늘 한복판으로 가는 소용돌이'는 전통적 산조의 마지막 부분, 즉 휘모리장단의 끝자락에서 시작돼 대설음(산조의 시작 부분)으로 이어진다. 오프닝은 일본적 느낌을 주지만 협연자 이지영의 해석 덕분에 한국음악으로 완성된다. 이 악장의 템포는 산조와 같이 서서히 빨라지는데, 관현악의 자진모리가 빠른 휘모리 독주로 변화하고, 속도가 빨

라지고 밀도가 깊어지면서 다시 관현악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소용돌이가 돼 있다. 산조와 현대음악에 두루 능통한 이지영은 이 곡의 동서양적 요소에 흥과 정교함을 더한다. 그리고 2악장은 시작 부분과 같이 리듬으로 끝을 맺는다.

연주회의 세 번째 작품인 황호준 작곡 '바르도'의 연주는 완벽했다. 하지만 전체 프로그램 구성에서 볼 때 위맥의 가야금 협주곡을 감싼 흰 빵과 같은 느낌이었다. '바르도'는 티베트어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사람이 거쳐 가는 49일의 시간을 뜻한다. 이 시간의 여정은 역동적으로 시작됐고, 후에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로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듣는 음악과 보는 음악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느낌이었다. 질주하는 말떼와 슬픈 새, 슬픈 새가 올라앉은 힘찬 말, 그리고 장례 행진을 떠올리는 마무리. 겨울은 왔고 새들은 이별을 고한다, 그리고 다시 말들은 경주를 시작한다. 경험적으로 관객은 익숙한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가정이 맞다면 관객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차용한 이 작품을 제일 좋아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작품인 김성국 작곡 '영원한 왕국'은 앙코르로 가는 응원의 서주 같았다. 이 작품 역시 리듬에 큰 중요성을 둔다. 시작 부분의 현을 뜯는 느낌은 뛰는 맥박과 같이 강렬했다. 개인적으로 화음에 앞서 리듬과 음색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국악관현악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국악기는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작품의 중간쯤, 나는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을 떠올리기도 했다.

앙코르곡인 '솔베이의 노래' 덕분에 '영원한 왕국'은 샌드위치의 '속'이 된다. 그리그의 '페르 키타 모음곡' 중 하나인 이 곡은 필자가 피오르 배경의 알래스카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밴드와 음악 경연대회에서 자주 연주하던 곡이다. 알래스카와 환경이 비슷한 노르웨이의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전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는 마에스트로 임현정의 능숙한 손짓에 맞춰 세심하고도 감성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한때 아시아의 오케스트라들은 생존을 위해 서양악기들만큼 기교적이며 화성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서양음악과 듣기 편한 민요 가락을 편곡해서 연주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날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것은 지난 세대에서 마무리됐어야 한다. 이런 기획은 결코 혁신적이라 할 수 없으며, 깊이도 세련됨도 없다. 또한 전통에 바탕을 둔 한국 예술의 격을 높이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100퍼센트 최첨단의 혁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재능 있는 작곡가와 명연주자들이 있어 다행이며, 국악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엿보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공연장을 떠났다.

글 조세린(Jocelyn Clark) 배재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야금 병창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번역 구지선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2017. 12. 8 - 2018. 2. 18

국립극장 하늘



진짜 마당놀이가 돌아왔다!

원형극장에서 펼쳐지는 명품 마당놀이
3년 만에 돌아온 심청이와 함께 올해도 걸판지게 놀아보세~



“날카롭고 속 시원한 시국 풍자에 객석은 연신 웃음바다” -KBS

“마당놀이의 부활. 떠들썩한 잔치판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재담을 늘어놓는 특유의 말이 살아 있다” -조선일보



공연일시

2017.12.8 - 2018.2.18

2017.12.8-12.24

화·수·토·일 15:00

목·금 20:00

2017.12.26-2018.2.18

화·수·목·토·일·공휴일 15:00

금 20:00

*월요일 공연 없음

공연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5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할인안내

50% 경로

- 65세 이상 (1인 1매)

30% 문화패스

- 24세 이하, 대학생 (1인 1매)

20% 엔톡(NTOK) 회원

- 국립극장 무료회원 (1인 4매)

예매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www.ntok.go.kr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티켓링크

1588-7890 ticketlink.co.kr



국립극장

나윤선 콘서트



2017.
12. 23(토)
|
12. 24(일)

토 4pm, 8pm
일 8pm
국립극장 | 해오름

VIP 10만원
R 8만원
S 6만원
A 4만원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Younsun
Nah
Concert*

주최 주관
국립극장, 허브뮤직

예매·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 해오름극장
- 달오름극장
- ★ 별오름극장
- 하늘극장

국립극장 11월 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div> <div>● 제17회 박이제 작곡발표회 '사랑·그리움 별이 되다' 19:30</div> <div> <div>★ 퍼포머그룹 파란달 '오셀로-질투는 나의 힘' 20:00</div> <div> <div>★ 퍼포머그룹 파란달 '오셀로-질투는 나의 힘' 20:00</div> <div> <div>★ 퍼포머그룹 파란달 '오셀로-질투는 나의 힘' 20:00</div> <div> <div>★ 퍼포머그룹 파란달 '오셀로-질투는 나의 힘' 16:00/19:00</div> <div> <div>● 무용 '모던 홍길동' 19:00</div> </div> </div> </div> </div> </div></div>			
5	6	7	8	9	10	11
<div> <div>● 무용 '떠난 자의 노래' 17:00</div> <div> <div>★ 퍼포머그룹 파란달 '오셀로-질투는 나의 힘' 16:00</div> <div> <div>● 무용 '모던 홍길동' 15:00/19:00</div> </div> </div> </div>			<div> <div>● 차수정 순현무용단 '한지위의 우리춤' 20:00</div> <div> <div>● 차수정 순현무용단 '일곱 개의 산' 20:00</div> </div> </div>		<div> <div>● 국립무용단 '묵향' 20:00</div> </div>	<div> <div>● 국립무용단 '묵향' 15:00</div> </div>
12	13	14	15	16	17	18
<div> <div>● 국립무용단 '묵향' 15:00</div> <div> <div>● 전통예술아카데미 수료공연 15:00</div> </div> </div>		<div> <div>● 매현출보존회 제7회 정기공연 '환생-경기도당출 90' 20:00</div> </div>			<div> <div>● 2017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특별공연 'Better Together' 20:00</div> <div> <div>●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 20:00</div> </div> </div>	
19	20	21	22	23	24	25
<div> <div>● 2017 K-발레월드 19:30</div> </div>			<div> <div>●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20:00</div> <div> <div>●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20:00</div> <div> <div>★ 2017 듀오벳 콘서트 '듀오벳:별오름' 20:00</div> </div> </div> </div>	<div> <div>●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20:00</div> </div>	<div> <div>●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20:00</div> </div>	<div> <div>●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15:00</div> </div>
26	27	28	29	30		
<div> <div>●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15:00</div> </div>		<div> <div>● 제40회 한국합창제 18:30</div> <div> <div>●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20:00</div> </div> </div>	<div> <div>● 제40회 한국합창제 19:30</div> <div> <div>●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20:00</div> </div> </div>	<div> <div>● 제40회 한국합창제 19:30</div> <div> <div>●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20:00</div> </div> </div>		

국립극장 공연가이드

해오름극장

국립무용단 **묵향**

일시 11. 10(금)~12(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2013년 초연해 국립극장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묵향’이 재공연된다.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낸 작품이다. 윤성주 전 예술감독이 안무하고, 아트 디렉터 정구호가 연출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다섯 판소리**

일시 11. 17(금) 오후 8시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다양한 음악적 기반을 가진 다섯 명의 작곡가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손잡고 판소리 다섯 바탕을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합주 형태로 새롭게 그려낸 판소리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제40회 **한국합창제**

일시 11. 28(화)~12. 2(토) 날짜별 시간 상이
관람료 1만~2만 원
문의 한국합창총연합회 02-3662-8534

올해로 40회를 맞는 국내 최대의 합창음악 축제 ‘한국합창제’가 닷새간 열린다. 초등학교·소년소녀·일반인·음악대학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하루씩 ‘합창의 밤’을 진행한다. 40주년을 되새기는 기념음악회도 준비됐다.

별오름극장

2017 듀오벳 콘서트 **듀오벳:별오름**

일시 11. 23(목) 오후 8시
관람료 전석 2만 5천 원
문의 프로덕션벳 02-6449-9225

장구 연주자 김소라와 가야금 연주자 임지혜로 구성된 듀오벳이 단독 콘서트를 연다. 우주의 삼라만상을 주제로 우리 주변의 자연을 표현한, 수묵담채화 같은 음악이 현대인에게 위안과 치유를 선사한다.

달오름극장

제17회 박이제 작곡발표회 **사랑·그리움 별이 되다**

일시 11. 1(수) 오후 7시 30분
관람료 VIP석 5만 원,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엘컬처 cafe.daum.net/mhypoem

작곡가 박이제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연·사랑·그리움·희망을 주제로 20곡을 연주하며, 이 가운데 17곡이 초연곡이다. 방송인 홍현종과 시인 임승환이 사회를 맡고, 김기웅이 지휘한다.

무용 **떠난 자의 노래**

일시 11. 5(일) 오후 5시
관람료 VIP석 4만 원, R·S석 2만 원
문의 라만무용 031-923-7080

전쟁을 배경으로 부녀의 안타까운 이별과 재회를 다룬 무용 작품 ‘떠난 자의 노래’가 공연된다. 국립무용단 ‘리진’ ‘도미부인’의 조안우, 국립창극단 ‘서편제’의 안무가로 활약한 정길만의 작품이다.

차수정 순현무용단 **한지위의 우리춤·일곱 개의 산**

일시 11. 8(수)~9(목) 오후 8시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차수정 순현무용단 yooneryung@naver.com

무용가 차수정을 필두로 한 차수정 순현무용단이 두 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청각·후각을 자극하는 융·복합 공연 ‘한지위의 우리춤’과 전통무용의 백미라 하는 승무를 재해석한 ‘일곱 개의 산’이다.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일시 11. 22(수)~12. 3(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지난해 11월 국립극장에서 초연하고, 올해 9월 싱가포르에서 공연하며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은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이 돌아온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연출가 웅경선과 극작가 배삼식, 명창 안숙선, 음악가 정재일이 제작진으로 참여했다.

하늘극장

2017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특별공연 **Better Together**

일시 11. 10(금) 오후 8시
관람료 무료
문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24

세계 9개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12명의 문화동반자가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세계음악의 화합은 물론, 그간 갈고닦은 국악기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음악감독 이상준이 지휘봉을 잡는다.

무용 **모던 홍길동**

일시 11. 4(토)~5(일) 토 오후 7시, 일 오후 3시·7시
관람료 VIP석 5만 원,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도미넌트 에이전시 070-8807-0608

가족애와 현실 극복, 영웅담에 이르기까지 극적인 줄거리를 가진 고전소설 ‘홍길동전’이 무용극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민영웅으로 탈바꿈한 ‘모던 홍길동’을 따라 각박한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얻어보자.

매한춤보존회 제7회 정기공연 **환생-경기도당춤 90**

일시 11. 14(화) 오후 8시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컬처버스 070-8276-0917

사단법인 매한춤보존회에서 고궤 김숙자 명인의 경기도당춤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무속과 전통춤을 보존하는 데 힘쓴 선생의 도살풀이를 비롯해 부정놀이·매헌입춤·진쇠춤 등을 선보인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일시 11. 22(수) 오전 11시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국악 브런치 콘서트 ‘정오의 음악회’가 이달에도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2번 중 왈츠로 문을 열며, 이육구 단원의 단소 독주를 눈여겨볼 만하다. 서은희 해금 수석과 싱어송라이터 최백호가 협연한다.

Haeoreum Grand Theater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Scent of Ink**

Date&Time November 10(Fri)~12(Sun) Weekday 8:00pm; Weekend 3:00pm
Tickets 70,000won(VIP), 50,000won(R), 30,000won(S), 20,000won(A)
Information National Theater of Korea 02-2280-4114

Scent of Ink has been a representative repertory of NTOK after the premiere in 2013. Its main themes, four gracious plants (Sagunja) and spirit of classical scholars, are represented on the stage like a portrait of ink painting. Choreographed by the former art director Yoon Sungjoo and directed by designer Jung Kuho.

National Orchestra of Korea **Five Pansori**

Date&Time November 17(Fri) 8:00pm
Tickets 50,000won(R), 30,000won(S), 20,000won(A)
Information National Theater of Korea 02-2280-4114

Five composers from the various musical backgrounds collaborate with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to reinterpret five Pansori based on the national orchestral music. A good opportunity to find the charm of refreshed Pansori ensemble.

40th Korean Choral Festival

Date&Time November 28(Tue)~December 2(Sat) Different schedule depending on the play
Tickets 10,000~20,000won
Information Korean Federation of Choral Music 02-3662-8534

The largest national choral festival *Korean Choral Festival* has its 40th anniversary. Group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dults, and college perform the ‘Choral Night’ every day for 5 days. The celebration concert for the 40th anniversary is prepared as well.

Byeoloreum Studio

2017 Duo Bud Concert **Duo Bud:Byeoloreum**

Date&Time November 23(Thu) 8:00pm
Tickets 25,000won
Information Production BUD 02-6449-9225

Duo Bud composed of Janggu player Kim Sora and Gayageum player Lim Jihye has its own concert. They will give the audience support and comfort with sensitive music under the theme of universal nature.

GUIDE

Information 02-2280-4114 | www.ntok.go.kr/english
※ No performances on Monday

Dalorem Theater

17th Park Iijae Performance **Love, Yearning, Stars**

Date&Time November 1(Wed) 7:30pm
Tickets 50,000won(VIP), 30,000won(R), 20,000won(S)
Information Life Culture cafe.daum.net/mhpcpoem

Composer Park Iijae has the stage to present his works. 20 pieces will be played under the themes of nature, love, yearning, and hope, and 17 of them premiere this time. Hosted by the broadcaster Hong Hyunjong and the poet Lim Seunghwan, and conducted by Kim Kiwoong.

Dance **A Song of Someone Who Left**

Date&Time November 5(Sun) 5:00pm
Tickets 40,000won(VIP), 20,000won(R, S)
Information Raman Dance 031-923-7080

A Song of Someone Who Left is the performance about the separation and reunion of the father and the daughter during the war. Jung Gilman who was sub-choreographer from *Lee Jin* and *Madam Domi* of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and choreographer from *Seopyeonje* of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takes charge of the performance.

Sunheon Dance Company **Dance on the Hanji, Seven Mountains**

Date&Time November 8(Wed)~9(Thu) 8:00pm
Tickets 50,000won(R), 30,000won(S)
Information Sunheon Dance Company of Cha Sujung yoonyeryung@naver.com

Dancer Cha Sujung and Sunheon Dance Company reveal two works this autumn. One is *Dance on the Hanji* which gives the audience visual and olfactory stimulation, and the other is *Seven Mountains* reinterpreted from the Buddhist dance, one of the best traditional dances.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TrojanWomen**

Date&Time November 22(Wed)~December 3(Sun) Weekdays 8:00pm; Weekend 3:00pm
Tickets 50,000won(R), 35,000won(S), 20,000won(A)
Information National Theater of Korea 02-2280-4114

After the premiere in November 2016 and performance in Singapore last September, the beloved changegeuk *TrojanWomen* has returned. Singaporean director Ong Keng Sen, master Pansori singer Ahn Sooksun, and composer Jung Jaeil reunite together.

Haneul Round Theater

2017 National Theater of Korea's CPI Musicians Special Concert

Better Together

Date&Time November 10(Fri) 8:00pm
Tickets Free admission
Information National Theater of Korea Arts Education Team 02-2280-5824

Cultural Partners of NTOK, consisting of 12 artists from 9 different countries, are proud to present the final performance, which concludes their five-month journey of cultural exchange. The concert is to demonstrate not only the musical harmonization of the world, but also the passion and effort of Cultural Partners, to learn Korean music and instruments. Music director Lee Sangjun will be conducting.

Dance **Modern Hero**

Date&Time November 4(Sat)~5(Sun) Sat 7:00pm; Sun 3:00pm, 7:00pm
Tickets 50,000won(VIP), 30,000won(R), 20,000won(S)
Information Dominant Agency 070-8807-0608

The classic novel *Hong Gildong Jeon* becomes the dance drama with its dramatic storyline of family, adversity, and hero. Meet the modern hero Hong Gildong to get the strength to overcome the hardness of reality.

7th Performance of Maehun Dance Preservation Association

Rebirth-Gyeonggi-do Dang Dance 90

Date&Time November 14(Tue) 8:00pm
Tickets 30,000won
Information Culture Bus 070-8276-0917

Maehun Dance Preservation Association has renewed the Gyeonggi-do Dang Dance of master Kim Sookja. Traditional dances including Dosalpuri, Bujeongnori, Maehun-ip, and Jinsoe dances will be shown to celebrate the deceased master.

National Orchestra of Korea **Midday Concert**

Date&Time November 22(Wed) 11:00am
Tickets 20,000won
Information National Theater of Korea 02-2280-4114

Midday Concert, a series of brunch concert with traditional music, prepares the valuable program this month. Opened with Dmitri Shostakovich's Waltz from Jazz Suite No.2, and performed by Seo Eunhee(Haegeum), Lee Younggu(Danso), and the singer-songwriter Choi Baekho.

클래식 음악 · 오페라



©Anne Dokter

다니엘레 가티&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11월 15~16일 | 롯데콘서트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거지를 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가 새로운 음악감독 다니엘레 가티와 내한한다. RCO는 2015년 이반 피세르와 내한해 베토벤 교향곡 전국 연주로 화제를 모았다. 다니엘레 가티는 마리스 안손스의 뒤를 이어 2016~2017 시즌부터 RCO의 지휘봉을 잡았다. 긴 역사를 지닌 악단의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우아한 사운드를 강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에선 양일 서로 다른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15일엔 2001년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1위를 수상한 첼로 수석 타티야나 바실리에바가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2부에선 말러 교향곡 4번을 선보인다. 16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프랑크 페터 치머만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1번이 준비돼 있다. 후기 낭만 레퍼토리 해석에 강점을 지닌 지휘자이기에 이번 RCO와의 첫 내한 공연이 더욱 기대를 모은다.



©Kwang-Seok Rich Cho

연광철&김선욱 독일가곡의 밤

11월 28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올해 초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내놓은 베이스 연광철이 아끼는 보석 같은 곡을 엄선해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광철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비롯해 바이에른 슈타츠오퍼·라 스칼라·메트로폴리탄 오페라·빈 슈타츠오퍼를 중심으로 모차르트 오페라와 바그너 전문 베이스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는 과하게 사색적으로 다가가면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난곡에서도 신선하고 원숙한 해석을 보여줬다. 그간 리트 공연에서 보여준 음악적 가치를 이번 무대에서도 드러내리라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선 슈베르트 '봄날에'를 시작으로, 브람스 '숲 속의 적막', 볼프 '미켈란젤로의 시에 의한 3개의 가곡'으로 이어지는 독일 리트 작품 18편을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하는 여정이란 더욱 특별하다. 김선욱은 2009년 연광철과 정명훈이 함께한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를 지켜보며 리트 반주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두 예술가의 만남을 놓치지 말 것.



서울시오페라단 코시 판 투테

11월 21~25일 | 세종M씨어터

지난 8월 이경재 신임 단장을 맞이한 서울시오페라단이 '코시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를 선보인다. 모차르트와 극작가 로렌초 다 폰테의 3부작 중 하나다. 모차르트는 보마르세가 쓴 희곡을 발견한 궁정 작가이던 다 폰테에게 대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 과정에서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시 판 투테'가 탄생했다. '코시 판 투테'는 남주인공 페란도와 굴리엘모가 각자의 연인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를 시험하기 위해 벌이는 유쾌한 해프닝을 다룬다. 상대를 유혹하는 과정을 재치 있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초연 당시엔 다소 선정적인 주제로 받아들여져 외면받다가, 19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다시 주목받았다. 서울시오페라단 공연의 페란도 역은 진성원과 정재환, 굴리엘모 역은 정일현·김경천이 출연한다. 피오르딜리지는 이윤정과 김미주, 도라벨라는 김정미와 방신제가 맡는다. 김영복·전태현이 두 연인을 시험하는 돈 알폰소 역으로 참여한다.



극단 1927 골렘

11월 16~19일 | LG아트센터

영국 극단 1927은 2005년 일러스트레이터 폴 배릿과 작가 수잔 안드레이드가 의기투합해 창단했다. 이후 배우 에스메 애플턴과 작곡가 릴리언 헨리가 합류하며 현재의 진용을 갖췄다. 작가·애니메이터·배우·작곡가 등 극단을 구성하는 독특한 조합처럼 개성 넘치는 작품을 쏟아내고 있다. 극단 이름 '1927'은 첫 번째 장편 유성영화가 만들어진 해를 의미한다. 1927은 2007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데뷔작 '비트윈(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로 5관왕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고, 점차 영국 공연계를 빛낼 새로운 보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초연한 '골렘'은 극단의 작품 세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골렘'은 소심한 주인공 로버트가 말하는 점토인형 골렘을 갖게 되면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이야기다. 서양에서 전해오는 골렘 신화를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길든 현대사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폴 배릿이 만든 애니메이션은 전작보다 풍성해진 시각적 효과로 시종일관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섯 배우의 정교한 연기는 마치 그들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된 듯한 착각을 불러온다. 점토인형 골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점토로 실제 인형을 만들어 걷고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했다. 릴리언 헨리의 피아노 연주 또한 작품의 백미로 꼽힌다.



국립극단 1984

~11월 19일 | 명동예술극장

우리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현대인은 항상 폐쇄 회로TV(CCTV)에 노출돼 있으며, 해킹과 도청은 일상의 일부로 여겨질 정도다. 과학기술은 어느새 감시와 규제의 수단이 돼버렸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빅브라더의 감시하에 모든 것이 통제되는 디스토피아를 생생히 담아낸 명작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데이비드 굿맨이 1978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소설 '1984'가 예언한 137가지 이야기 중 100가지 이상이 이미 실현됐다고 한다. 더는 소설이 아닌 섬뜩한 현실이 됐다.

이번에 국립극단이 선보이는 '1984'는 2013년 영국 노팅엄 플레이하우스에서 초연된 로버트 아이크와 덩컨 맥밀런의 각색본을 바탕으로 한다. 원작의 묵직한 주제 의식을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며 독특한 전개로 풀어낸 작품이다. 연출은 '세일즈맨의 죽음' '하나코' '단테의 신곡' 등 선보이는 작품마다 방향을 일으킨 연출가 한태숙이 맡는다. 극작가 고연욱이 윤색을 담당해 영국과 다른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특징을 담아 작품 속 질문들이 더욱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겹겹이 쌓아 올린 박스 형태의 무대에 스크린이 설치되고, 심리적 공간을 좁히거나 확대하는 데 조명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빅브라더와 당의 통제에 저항하는 주인공 윈스턴 역으로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이승현이 무대에 오른다. 내부당원 오브라이언 역은 이문수가 맡아 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이중사과의 세계를 보여준다.

무용



©photographer BAKi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11월 1~5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누구보다 불행한 생을 산 한 여인의 이야기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보편적 소재와 19세기 후반 러시아 사회의 실정을 함께 담고 있다. 질투·애증 등 인간의 감정을 비롯해 계급·종교 등 사회구조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뮤지컬·연극·영화 등 다양한 작품이 탄생했다. 올가을, 국립발레단은 평창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안나 카레니나'를 선보인다. 취리히 발레 예술감독 크리스티안 스푸크가 안무한 작품으로,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에서 2014년 초연했다. 안무가는 여주인공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다른 주요 인물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면밀히 다뤘다. 비극적 운명을 짊어진 안나 카레니나의 이야기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와 비톨트 루토슬라프스키의 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강릉 올림픽아트센터 무대에서도 공연된다.



©Jesus Vallinas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

11월 9~12일 | LG아트센터

스페인국립무용단이 10년 만에 다시 내한한다. 1979년 창단해 20여 년간 나초 두아토가 이끈 스페인국립무용단. 2010년부터 파리 오페라 발레 출신의 호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그는 안무가 요한 잉거에게 현대적인 스타일의 '카르멘'을 의뢰했다. 무용단이 변화하려면 새로운 레퍼토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요한 잉거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매혹적인 발레로 탈바꿈시켰다.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인도하는 소년이라는 캐릭터를 새롭게 넣은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파국에 이르는 모든 장면이 어린 소년의 눈으로 목격되면서, 인물 사이의 비극성이 더욱 강화됐다. 로디온 세드린 '카르멘 모음곡' 일부를 마르크 알바레스가 편곡해 색다른 음악으로 완성했다. 무대 위 삼각기둥 형태의 프리즘 아홉 개가 회전하면서 독특한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요한 잉거에게 2016년 브누아 드 라 당스 안무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이다.



©Universal Ballet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

11월 24~26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발레 '오네긴'은 푸시킨의 소설을 원작으로, 안무가 존 크랭코와 작곡가 쿠르트 하인츠 슈틀체가 완성했다. 크랭코와 슈틀체는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오페라에서 음악을 차용하지 않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곡 28편을 발췌해 음악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 작품은 1965년 슈투트가르트 발레 초연 이후 존 크랭코의 예술성을 대변하는 걸작으로 남았다. 안무가의 수많은 드라마발레 작품 중에서도 심리 묘사를 가장 정교하게 풀어냈다고 평가된다. 풍부한 내면 연기가 돋보이는 독무와 파드되를 전면 배치하고, 차이콥스키의 음악으로 작품의 서정성을 끌어올렸다. 남녀 주인공의 1막과 3막 파드되의 감정선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묘미. 그런 매력 덕분인지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강수진,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디아나 비시네바 등 많은 무용수들이 은퇴작으로 '오네긴'을 선택했다. 이번 공연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황혜민과 엄재용의 고별 무대다.

전시



강애란,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 2017

전시 덕수궁 야외프로젝트-빛·소리·풍경

~11월 26일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기리며 덕수궁을 조형적으로 바라보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덕수궁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대외에 밝힌 장소다. '덕수궁 야외프로젝트'에선 궁내 일곱 공간에 작가 아홉 명의 작품이 펼쳐진다. 참여 작가들이 덕수궁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의 특성을 재해석한 결과다.

관람 동선은 관람객이 입장해 퇴장하기까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중화전 앞 행각에는 피아니스트 양방언과 설치미술가 장민승의 공동작품 '온돌야화'가 설치됐다. 석조관 본관과 별관을 잇는 공간에선 김진희의 '딥 다운-부용'과 정연두의 '프리즘 효과'를 만날 수 있다. 덕수궁에서 유일하게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 석어당 대청마루에선 권민호의 '시작점의 풍경'을 접할 수 있다. 한때 고종황제의 접견실로 사용된 덕흥전에는 고종의 서고를 재현한 강애란의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과 병풍 형식으로 만들어진 임수식의 '책가도389'가 전시돼 있다. 고종이 승하한 공간, 함녕전에선 구한말 일제의 압력에 고통받아 불면증에 시달린 고종의 심정을 표현한 이진준의 영상 작품을 만난다. 전시의 종착점인 함녕전 행각에서는 오재우의 '몽중몽'을 통해 영상화된 꿈의 이미지를 가상현실로 체험한다. 관람객은 유구한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만의 빛과 소리를 찾아가며 특별한 시공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l Anatsui, Rehearsal, Aluminium and cooper wire, 2015 ©JK GO

전시 엘 아나추이-관용의 토폴로지

~11월 26일 | 바라캇 서울

가나 출신의 엘 아나추이는 조각에 대한 전통적 관습을 거부한 작가다. 그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는 사회참여 예술가이기도 하다. 엘 아나추이는 수많은 알루미늄 조각을 구리 끈으로 엮어 태피스트리(염색사를 이용해 그림이나 무늬를 짜 넣은 직물)처럼 변형시킨 작업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를 통해 소비와 낭비, 환경이라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언급한다. 또한 동시대 아프리카 문화에 오래도록 뿌리내린 서구 문화를 은유적으로 상기시킨다. 반강제적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한 술병의 뚜껑을 모으는 작업은 아프리카 식민주의 시대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되짚어보는 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엘 아나추이의 작품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 토폴로지(topology)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토폴로지는 위상기하학이라고 불리는 현대 수학의 한 분야로, 연결된 관계에 따라 변형되는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들이 전시장 공간의 변형을 시도한다. 각각의 작품은 설치된 장소의 맥락과 이를 마주하는 관람객 개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체험을 만들어낸다. 공간 안에서 관람객은 작품과 사적인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확장해나간다. 엘 아나추이는 일흔이 넘는 지금도 새로운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드리드의 팩툼 아르테(Factum Arte)와 협업한 새로운 작품 역시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글 장혜선 바른 시선으로 무대를 영원히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글을 쓰고 있다.

MIX

54

세계무대

뉴욕 브로드웨이의 티켓 전쟁

58

시즌인문학

‘홍보만보록’ 발견의 의미와 고전 읽기

62

악기도감

이응구의 단소·통소

66

고전의 재발견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 ‘동백꽃 여인’

70

문화동반자

고별공연을 앞두고



 뉴욕 브로드웨이의 티켓 전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것은?

뮤지컬 티켓 1장 가격이 2만 2,000달러, 우리 돈 2,400만 원을 넘는다.
그것도 제일 좋은 좌석이 아닌 1층 맨 뒷자리다.
티켓 재판매상과 제작자는 웃고, 팬들은 운다.



01



브로드웨이 뮤지컬 ‘헬로, 돌리!’의 제작자 스콧 루딘은 주연배우 벳 미들러가 출연하는 2018년 1월 중순까지의 프리미엄 좌석 가격을 998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이 가격에 팔리는 시기는 미국 명절인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 직전부터다. 티켓 구매 사이트에서 1장당 최소한 1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매기므로, 관객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000달러를 넘어선다. 인상 전 가격은 525달러다. 525달러도 무섭도록 높은 가격이라 브로드웨이 관객에게 꽤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제작자들은 태연했다. 1964년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 초연 당시 대사한 줄 없는 마을 주민 역으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한 벳 미

01
‘헬로, 돌리!’의 주인공
벳 미들러를 맨 앞에서
볼 수 있는 좌석 티켓 가격은
액면가 998달러다.
©Julietta Cervantes

들러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중 하나인 ‘헬로, 돌리!’의 주인공으로 약 40년 만에 뮤지컬로 돌아왔고, 그 역할로 2017년 토니상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쥔 뒤라 그녀가 출연하는 날의 압표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그 열매를 제작자가 따먹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돈에 영혼을 판 제작자라도 2015년이었던 525달러를 매기거나, 그것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잘 팔리자 가격을 거의 두 배로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망설였을 것이다. 스콧 루딘은 서슴지 않았다. 바로 이전 시즌에 개막한 뮤지컬 ‘해밀턴’이 길을 터놔기 때문이다.

뮤지컬 ‘해밀턴’은 아이로니컬한 작품이다. 브로드웨이의 살아 있는 전설인 스티븐 손드하임은 ‘해밀턴’의 작가 겸 작곡가면서 주연까지 맡은 린 매뉴얼 미란다를 천재라고 추켜세우며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이 나왔다고 찬사를 보냈다. 기존의 작품과 다르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은 많았지만, 파격적이면서도 평단과 대중의 열광을 한 몸에 다 받은 작품은 21세기 들어 사실상 ‘해밀턴’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개막해 기존 브로드웨이 문법을 다 깨부셨다는 평을 받은 ‘스프링 어웨이크닝’은 클래식한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했다. 3년간 뒤편하며 흑자를 냈지만 어딘가 컬트한 면이 분명 존재했고,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세대 차이만큼이나 크게 갈렸다.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면 기존 브로드웨이 제작 시스템 바깥에서 만들어진 작가주의 작품이라는 점, 기존 브로드웨이 작품보다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는 단일 세트를 유지하는 콘셉트 뮤지컬이라는 점이 있다.

거장의 시대가 한참 전에 지나가버린 브로드웨이지만 프로듀서가 제안하는 ‘입맛’에 관객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하기도 꽤 됐다. 그 증거가 바로 ‘스프링 어웨이크닝’(2006), ‘북 오브 모르몬’(2011), ‘원스’(2011) 등 작가주의 작품이다. 그중 아직까지도 공연되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은 기존 브로드웨이 코미디의 문법을 제일 충실히 따라간 ‘북 오브 모르몬’이다. 이와 같은 흥행 결과에서 브로드웨이의 보수적인 관객 성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뮤지컬 ‘해밀턴’은 음악 장르부터 파격적이다. 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힙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간결하면서도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가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인생을 다루면서도 그를 영웅시하지 않고 그의 단점과 숨겨진 스캔들, 열정, 그 열정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까지 그

대로 드러낸다. 그러면서 나약한 내면을 지닌 인간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뿐인가. 워싱턴 대통령 역에 흑인 배우를 태연하게 캐스팅하고, 남성 배역에 여성 배우를 쓰는 등 인종과 성별을 초월한 캐스팅으로도 화젯거리를 만들었다. 현재 ‘해밀턴’은 미국 투어 공연도 진행 중이며,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공연 개막을 앞두고 있다.

‘해밀턴’을 본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외친다. 2016년 토니상 시상식 중 ‘해밀턴’의 쇼케이스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영상으로 작품 소개를 한 이가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내외일 정도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어떻게 보여준단 말인가. ‘해밀턴’이 공연되는 리처드 로저스 극장의 전체 1,319석 중 200석이 프리미엄 좌석으로 묶여 있고, 그 액면가만 849달러다. 물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제작자는 475달러이던 프리미엄 좌석 가격을 849달러로 올리는 대신 회당 21장씩 판매하던 로터리 티켓의 수량을 46장으로 늘렸고, 학생들을 위해 공립학교에 제공하는 바우처의 수도 늘렸다. 로터리 티켓은 해밀턴의 얼굴이 새겨진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으로 살 수 있지만, 도대체 누가 당첨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 관객이 극장에 직접 와서 이름을 쓴 쪽지를 바구니에 넣으면 공연 두 시간 전에 추첨하는 고전적인 로터리 방식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 당첨자를 뽑는 최첨단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로터리 웹사이트가 처음 구동된 날에 이메일을 써 넣은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이었다고 하니, 길 가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더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 방법은 극장 매표소 앞의 취소표 줄에 서는 것이다.

티케팅? 아니 그야말로 ‘피’케팅

티켓 판매회사인 티켓마스터는 올여름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고, 이를 처음으로 적용한 작품이 뮤지컬 ‘해밀턴’이다. 구매자가 티켓마스터에 ‘해밀턴’ 팬으로 등록하고 코드를 받는 것이다. 티켓마스터는 그 팬의 과거 구매 이력을 검색해 매크로를 쓰는 로봇이나 압표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을 경우에만 구매권을 준다. 2016년 12월 뉴욕주는 티켓 구매 시 매크로를 사용하는 일명 ‘봇’의 사용을 금지하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효용성에 대해 수궁하는 팬은 사실 거의 없다. 현재 미국에서 티켓 재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



이 산 티켓을 극장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 웃돈을 얹어 팔다면 경찰에게 잡혀갈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재판매상으로 등록된 업체는 불법이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인가 싶지만 사실이다. 그래서 한 해 ‘티켓 재판매상’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브로드웨이 전체 수익을 상회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해밀턴’의 오리지널 주인공이자 창작자인 린 매뉴얼 미란다의 마지막 공연 티켓은 돈을 주고도 못 살 정도로 가격이 올라 2만 2,000달러를 넘어섰다.(더 무서운 것은 그 자리가 1층 맨 뒷자리였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열불이 날 만도 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재판매상이 챙겨가는 꼴이니까. 티켓마스터는 2016년 ‘봇’을 금지하기 전까지 티켓 판매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재판매상들이 쟁였다고 추정했다. 순수 관객은 정가의 몇 배로 비싼 프리미엄 좌석은 엄두도 못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놓고 또 경쟁해야 한다. 그야말로 ‘피’케팅이다. 이 피케팅을 진짜 혈투로 만든 또 하나의 공연이 개막했는데, 바로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단독 공연이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평소에 수만 명이 입장할 수 있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티켓을 매진시키는 록 스타지만 어려서부터 브로드웨이의 유서 깊고 아름다운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하기를 꿈꿨다고 한다. 200달러를 주고도 망원경으로 스타를 바라보며 만족해야 했던 그의 팬들에

02

2017년 토니상 작품상을 받은 뮤지컬 ‘디어 에벤 헨스’

©Matthew Murphy



게 960석짜리 아담한 극장에서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 공연은 소중한 기회다.

티켓마스터 측은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구매자의 90퍼센트가 압표상이 아닌 순수 구매자라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말대로라면 떨어지지 않는 재판매 가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티켓마스터는 티켓 판매와 동시에 재판매 중계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업을 벌여 전통적 재판매 사이트인 스티브허브StubHub를 위협하고 있다. 개인 재판매상은 불법이지만 공인 재판매 사이트에 수수료를 내면 합법으로 둔갑한다.

이 와중에 브로드웨이 티켓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시즌 브로드웨이의 평균 티켓 가격은 109달러였는데 이번 시즌은 116달러로 올랐다. 이 평균 가격은 액면가 40달러짜리 러시 티켓부터 프리미엄 좌석을 뺀 가장 높은 좌석까지의 평균이다. 현재 티켓 가격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뮤지컬 ‘해밀턴’은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때 139~177달러이던 가격을 179~199달러로, 프리미엄 좌석은 849달러로 올렸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달러에서 1달러 모자라는 데까지 가격을 인상하면서 댄 이유가 ‘붓’을 이용한 불법 재판매상 견제였다. 즉 압표 가격만큼 티켓 가격을 올리면 그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게 제작자 제프리 쉐러의 입장이었다. 사실 불법 재판매상에

게 갈 돈을 제작자가 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재 ‘북 오브 모르몬’의 프리미엄 좌석 가격이 447달러, 2017년 토니상 작품상을 받은 ‘디어 에벤 헨슨’이 448달러, ‘아나스타샤’가 350달러, ‘컴 프롬 어웨이’가 347달러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런 프리미엄 좌석마저 재판매상으로 말미암아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작품을 너무 사랑하거나, 맨 앞줄에서 뱃 미들러와 악수 한 번 하는 게 인생의 소원인 부자들에게는 장당 1,000~2,000달러를 훌쩍 넘는 티켓 값을 지불하는 게 아깝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티켓 한 장 값이 한 달치 집세보다 높은 평범한 뮤지컬 팬들에게 뮤지컬 좌석을 구하는 길은 급속도로 요원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팬들의 입장은 한결같다. ‘붓’을 금지할 게 아니라 재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작자들은 한결같이 ‘붓’만을 탓하며 재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스티븐 손드하임이 지적한 것처럼 브로드웨이가 뉴욕의 팬들을 잃고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관광산업으로 전락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 바로 브로드웨이 극장이 그 자체일 것이다.

글 이수진 극작가·공연칼럼니스트. 한국 뮤지컬계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 ‘뮤지컬 스토리’를 썼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와 ‘그리스’ 등을 번역했다. 뮤지컬 대본을 쓰며 여전히 무대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홍보만보록’ 발견의 의미와 고전 읽기

문학, 시대를 품다

‘홍부전’의 현존 최고본^{最古本}으로 추정되는 ‘홍보만보록’이 발견됐다. 널리 알려진 바와 다른 설정이 있지만 이 역시 당대를 보는 다른 눈이다.



‘홍부전’의 주인공은 당연히 홍부다. 그리고 그의 성은 ‘당연히’ 박 씨 혹은 연 씨다. 연燕 씨로 기록된 것은 아마도 ‘제비’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세창서관본에서는 두 형제가 연생원의 아들이라고 했고, 신재효본에는 박가^{朴加}로 나온다. 공간적 배경 또한 삼남, 즉 충청·전라·경상 중 어느 한 곳이거나 그 세 도^道가 겹치는 어떤 곳이라고 전해졌다. 구전이라는 게 글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아닌 까닭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적당히 변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같은 ‘홍부전’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다. 심지어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 ‘홍보전’ ‘박홍보전’ ‘놀부전’ ‘연燕의 각^각’ ‘박홍보가’ ‘홍보가’ ‘놀부가’ ‘박타령’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판소리계만 그런 건 아니다. 필사본도 ‘홍보전’ ‘박홍보전’ ‘연의 각’ ‘홍부전’ 등의 이름으로 전하는 판본만 30여 종이 있다. 또한 한글본이 있고 한문본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름과 조금씩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건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회에 따라 그 해석이나 바람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를 품는다.

우리는 흔히 소설이라고 하면 ‘있음직하게, 그럴듯하게 꾸며 쓴 글’로 받아들인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래서 뜻밖에 낮추보는 경향조차 있다. ‘소설 쓰고 있네’ 같은 말이 그런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소설은 결코 그냥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잡설도 아니다. 때로는 소설이 시대를 바꾸거나 혁명을 이끌기도 한다.

프랑스혁명을 이끈 시민들은 몽테스키외와 같은 사상가의 저작을 읽어서 사회를 비판하고 체제를 전복한 게 아니다. 당시의 삶을 그려내고 그 실상의 비판적 부분을 시민이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게 쓴 ‘다른 글’이 있었고, 이로 인한 시민의 ‘생각 전환’이 혁명의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국 시민들이 사회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된 데에도 로크나 밀의 사상서보다는 디킨스가 쓴 여러 소설의 힘이 훨씬 더 컸다. 즉 소설은 그 시대의 속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놀라움과 분노 또는 변화의 의지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녔다.

‘홍부전’이 당시 사회를 반영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





다. 책으로 남아 전해지는 여러 ‘홍부전’이 경판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소리적인 서두로 시작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작품이 판소리 사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생성됐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야기의 생성 시점은 훨씬 더 전일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1592~1598)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홍부전’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못된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홍부가 주인공이다. 형인 놀부는 부자지만 심성이 고약한 반면, 동생인 홍부는 가난하지만 심성이 착한 인물이다. 그래서 놀부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왜 그럴까? 놀부의 심성이 고약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부자가 된 것이 도둑질 같은 부도덕한 짓의 결과는 아니다. 단지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시대에 부모의 유산은 자식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됐다. 심지어 딸들에게도 유산이 공정하게 돌아갔는데, 이는 조선 초기와 중기 분재기(分財記)(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한 문서)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중기 이후에 들어서면 장자상

속으로 변질된다. 왜 그랬을까?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은 대다수 조선 사람들의 경제 상태를 극한으로 내몰았다. 나뉘줄 재산도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그걸 나누면 모두에게 조족지혈의 형편밖에 되지 않았으니 제사를 모시는 장남에게 몽땅 상속하는 변칙(?)을 선택한 것이다. 놀부가 부자인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서 장자에게 상속한 데엔 재산을 독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동생들을 살피고 도우라는 뜻이 내포됐을 것이다. 그러나 건물생심이라고, 마음씨 고약하고 욕심 많은 장남이 그걸 독차지하는 일도 허다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차남 이하 형제들은 어땠을까? 심사가 꼬이고 그런 처사가 불공정하게 느껴졌을 건 당연하다. 그런 울분과 절망이 투사된 소설이 바로 ‘나쁜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홍부’의 대립 구도를 보이는 ‘홍부전’인 셈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지역과 사람, 시대를 거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이고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회에 따라 각자의 생각과 해석이 투사된 방식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구비 혹은 구전 문학의 특징이 대부분 그렇듯 하



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기술^{記述} 문학과 달리 각자의 뜻과 바람이 적절히 변용되고 침식됐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대표적 사례의 하나를 신재효의 판소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재효본에는 홍부의 착한 행실을 말한 부분, 홍부가 놀부에게서 쫓겨나와 오랫동안 빌어먹는 장면 등이 추가돼 있는 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지어 ‘홍부전’의 중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홍부가 대신 매를 맞으러 가는 장면 등은 빠져 있다. 그것은 신재효가 전래의 ‘홍부가’를 ‘박타령’으로 개작하면서 자신의 독창적 해석을 가미했기 때문이다.

이본^{異本}, 반격을 꾀하다

신재효가 판소리 ‘박타령’으로 개작하면서 놀부를 당당한 양반으로 격상시킨 반면 홍부를 그 반대의 인물로 설정한 것은 1차 독자가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박타령’에는 ‘홍부전’에 있는 서민적 삶의 발랄함이 상당 부분 거세됐을 뿐 아니라 주제마저 다분히 윤리와 도덕의 형태로 변질됐다. 즉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

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전 혹은 구전을 바탕으로 한 기술 문학의 형태는 다양한 층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모든 이본은 기존의 유명세를 지닌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면서 각자 품은 사상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이본은 나름대로의 반격 혹은 전도^{顛倒}나 전복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최근 현존하는 ‘홍부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홍보만보록’이 발견되어 학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우선 주인공의 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박 씨나 연 씨가 아닌 장 씨라는 점(홍부는 무과에 급제해 황해도 개풍군 지역 덕수 장 씨의 시조가 된다), 신분도 ‘궁민’으로 표현된 평민이라는 점 등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배경이 되는 지역 또한 평양 서촌(현재 평양시 순안구역)이다. 이 필사본이 2017년 현재까지 발견된 40여 종의 ‘홍부전’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833년에 쓰였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판본이 소설의 가장 오래된 원형은 결코 아니다. 구전이 먼저고 기술이 나중이기 때문이다.

‘홍보만보록’은 인물의 설정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설정도 매우 독특하다. 홍부와 놀부는 모두 부잣집 데릴사위로 처가에서 살았다. 그러다 홍부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본가로 돌아오지만, 놀부는 처가에 계속 머물면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악당 놀부가 착한 홍부를 괴롭히는 이야기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표출하는 것이라면, 이 판본은 당시 사회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프레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어떤 게 정본이고 어떤 게 이본이냐의 문제를 떠나 이본이 어떻게 정본을 비판하고 풍자하면서 다른 방식과 해석을 따르는지를 살피는 건 단순한 문학적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다. ‘놀고먹는 놀부와 가난한 홍부’의 형제 구도라는, 봉건사회의 착취와 피착취 관계를 드러내는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이 여러 판본에 의해 다양한 해석을 낳는 것은 비단 과거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이본을 만들어낸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될까? 시대를 냉철하게 바라보면 그 답이 나올 것이고 두려움과 반성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글 **김경집** 인문학자. 왕성한 집필 활동과 강연 등을 통해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생각을 걷다’ ‘인문학은 밥이다’ 등이 있다.
그림 **조성현** 일러스트레이터

이용구의 단소·통소

바람길 따라 세상과 통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소리 내기 어려운 국악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그는 우물을 파고 매우듯
지공을 뚫었다 막기를 반복하면서 단소의
가능성을 확대해왔다.



“태어나 처음 듣는 음색이었어요. 고등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뽕뽕이’ 치고 나간 공원에서였죠. 리코더는 아닌데… 뭘까 싶어 무작정 소리를 쫓아갔지요.”

오묘한 뽕소리를 쫓아 도착한 곳은 청주 YMCA(기독교청년회) 회관. 일주일에 한 번 청년을 대상으로 단소 교습을 하는 동아리 ‘청유회’였다. 지금과 달리 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지 않던 1986년, 음악을 좋아해 리코더로 가곡을 불곤 했던 이용구는 그렇게 단소와 처음 만났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통악기 동아리와 풍물패·탈춤패가 생기면서 막 민족문화가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단소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청년 동아리라고 고등학생은 가입이 안 된다더라고요. 물어 물어 PVC파이프로 만든 단소를 구해 혼자 연습했어요.”

이용구의 옛이야기에 진취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다. 5음 음계에 익숙지 않던 그는 다시 YMCA를 찾아 배움을 청했다. 지공을 뚫고 악기를 만들었으며, 전공 개념이 없는 단소 대신 대금을 배워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단소 산조 창시자인 추산 전용선의 가락을 이어받은 이생강의 집에 머물며 단소와 대금 가락을 전수받았다.

“이생강 선생님께서 산조단소를 배웠어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학생을 거두셨는데, 모두 모여 앉아 단소와 대금을 불곤 했죠. 어깨너머로 한 가락씩, 많은 것을 배운 시기였어요.”

그러던 중 제9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1989), 제1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악 부문 장원(1990)을 수상하며 이용구라는 이름을 알렸다. 1994년 국립창극단 기악부에 입단해, 이듬해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단원이 됐다. 지금까지 꼬박 20년 넘는 세월을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했다.

“단소로 악기를 시작했지만,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선 대금을 불어요. 그간 악장으로 신경 쓸 일이 많아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평단원이 되니 마음이 편안하네요.(웃음) 사실 국악관현악에서 단소가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단소가 필요할 땐 대금 주자가 연주하지요. 2013년 가야금 수석 문양숙 단원과 함께한 국립예술가시리즈15 ‘수작秀作’이 기억에 남아요. 첫날에 단소 산조와 창작곡을 비롯해 영국 민요 ‘그린슬리브스Greensleeves’와 헨델의 리코더 소나타 G단조를 개량단소로 선보였어요. 바로크 첼로와 단소의 음색이 꽤 잘 어울리더군요. 바로크식 리코더도 나무로 만든 악기니, 단소로 연주해도 자연스러울 수밖에요.”

오늘날 단소로 창작곡과 서양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된 것



2013년 '이용구·문양숙의 수작秀作' 공연 모습

은 이용구의 개량 덕이다. 오랜 시도 끝에 2002년, 그는 2개의 지공을 추가해 반음 연주가 자유롭도록 개량한 단소로 특허를 취득했다.

“악기를 시작한 때부터 지공을 뚫어 새로운 음을 불어보곤 했어요. 연탄집게로 구멍을 내고, 달걀 우산대로 내경을 넓히며 악기를 직접 만들었죠. 뒤늦게 지공 뚫는 기계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지만요.(웃음) 오케스트라 아시아 활동을 하면서 악기를 본격적으로 개량하게 됐죠. 우리 악기는 음정의 간격과 배열이 서양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서양어법으로 쓴 곡을 편하게 연주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악기는 개량을 통해 음을 효율적으로 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악기로 12반음을 모두 연주할 수 있을까? 서양음악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기 개량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작업이었어요. 개량단소를 만들고 난 뒤엔 교본도 쓰고, 음반도 냈죠.”

많은 것을 이룬 지금도 그는 여전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12울명에 익숙지 않은 초보자가 좀 더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지공에 번호를 매긴 숫자보를 만들고, 맥이 끊겨가는 단소 산조를 살리기 위해 교본도 집필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엔 전용선 선생의 단소 산조를 분석해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앞으로 남은 일은 조마다 단소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거실에선 큰 TV, 이동할 땐 더 작은 차량용 모니터, 야외에선 스마트폰으로 TV를 보잖아요. 조에 맞는 단소를 골라 쓸 수 있다면 여러 개의 악기를 두고 특정 시점에 맞게 바꿔 연주할 수도 있겠죠. 창작곡이 더 많이 나올수록, 개량단소도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

단소의 흠어진 역사를 모아

단소의 기원은 뼈에 구멍을 뚫어 만든 고대의 피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 백제의 금동대향로와 신라의 피리 부는 천인상 등을 보면 천인들이 단소와 비슷한 악기를 불고 있다. 일본의 보물 헌납 기록인 '도다이사헌물장(東大寺獻物帳)'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이 사쿠하치(尺八)를 전했다고 한다. 사쿠하치는 지금의 단소와 음계가 같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단소와 같은 악기가 있었다고 짐작한다. 그러나 널리 연주됨에도 성문화된 기록은 드물다.

“조선 성종 때 ‘악학궤범’에도 통소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단소는 없어요. 아무래도 단소가 만들기 쉽고, 민초의 악기란 인식에선지... 통소도 민간에서 쓰던 것이 아니라 아악용 통소만 기록에 있죠. 단소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실제로는 널리 쓰였을 거예요.”

조선 후기, 호젓한 음색을 지닌 단소는 풍류악기로 사랑받았다. 합주는 물론 시조와 가곡 반주에도 빠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연주자들이 각 지방의 풍류방에 모여 영산회상 한 바탕 연주하는 게 낙이었어요. 풍류를 즐기는 것이지요. 여러 악기가 모이는 곳엔 항상 단소가 빠지지 않았어요.”

풍류는 전라도 전주나 이리(익산), 구례의 줄풍류가 이름났고 이곳에서 활동하던 추산 전용선은 단소 산조를 만들었다.

“단소는 취구가 작아 요성이 힘들고, 다른 악기에 비해 음역이 좁아 산조를 연주하기 어려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걸 전용선 선생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선생의 가락이 온전한 형태로 전승되진 못했다. 이용구는 흠어진 산조 가락을 모아 한 바탕으로 복원했고, 1994년에 초연했다.

“선생님의 음원 다섯 개가 전해져요. 김소희 명창의 자택, 어느 덕사랑방 같은 곳에서 연주한 것을 누군가 녹음한 거죠. 보통 관악기 산조는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네 장단으로 구분되는데, 네 장단이 모두 연주된 녹음은 없어요. 토막으로 나뉜 장단들을 산조 형태로 짝을 맞추고, 연주하기 편하게 13분 정도로 짧게 재구성했어요. 가락을 덜고 넣고 옮기며 하나의 틀로 만든 거죠.”

지금처럼 단소가 ‘만인의 국악기’로 인식된 것은 1995년 제6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부터다. 국악 교육을 장려함에 따라 휴대하기 편하고, 연주법이 한결 쉬운 단소가 널리 사용됐다.





단소와 통소 자세히 들여다보기

단소와 통소의 소리는 ‘대나무로 만든 종적악기’를 뜻한다. 단소(短簫)는 ‘짧은 소’, 통소(洞簫)는 ‘위아래로 뚫린 소’다. 해묵은 황죽이나 검은 오죽으로 만드는데, 대가 동그란 숫대보다 타원형에 가까운 암대가 소리 내기에 더 편하다. 단소는 크게 정악단소·산조단소·개량단소, 통소는 정악통소·시나위통소·북청사자놀이음통소로 분류한다. 이용구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악기를 연주한다. 악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蓮’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다. 그가 고등학교 때 받은 호, 연성(蓮聲, 연꽃의 소리)에서 따왔다.

현재 연주되는 대부분의 악기는 정악단소다. 정악단소는 경기음악에 쓰여 경제(經濟)단소라고도 한다. 산조단소는 향제(香祭)단소에 속한다. 향제는 남도에서 연주되는 스타일로, 경제보다 전체적인 음고가 높다. 산조단소 역시 정악단소보다 반음 높다. 두 악기의 길이는 비슷하나 정악단소의 지공이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정악과 산조 악기의 가장 큰 차이는 요성 방법이다. 정악단소는 플루트의 비브라토처럼 호흡의 강약으로 요성을 낸다. 산조단소는 고개를 흔들며 강하게 음을 떠는데, 시김새에 따라 악기를 숙이고 젖히기도 한다. 상체를 이용해 남도음악의 깊고 구성진 맛을 살리는 것이다.

정악단소의 3·4공 사이, 5공 아래에 지공을 추가한 개량단소는 7음음계 연주가 가능하다. A^b(중^中)관을 예로 들면, 기존의 지공으로 연주할 수 없던 C(남^南)음과 G(고^高)음을 낼 수 있다. 이용구의 개량단소에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물을 파고 메우듯, 지공을 몇 번씩 뚫었다 막기를 반복하며 완벽한 음정을 내는 구멍을 찾은 흔적이다. 통소는 주로 북청사자놀음의 반주 악기로 쓰인다. 가장 아래엔 음정 조절을 위한 헛구멍인 칠성공이 뚫려 있다. 통소의 지공 크기는 단소의 세 배 정도. 시나위통소와 북청사자놀이음통소에는 청공이 있어 통소의 음색에 장쾌함을 더한다. 아악통소는 조금 더 굵고 크며, 청공이 없어 큰 단소와 음색이 비슷하다.

그의 손에 전해진 단소 작품

이용구는 재일동포 연주자인 리동신에게 단소와 산조 악보를 만들어 주고, 리동신은 그에게 북한의 개량단소 작품을 선물했다. 단소를 가운데 두고 남북 교류를 이룬 셈이다. 그렇게 받은 곡이 ‘초소의 봄’(작곡 공영송), ‘봄소식’(작곡가 미상), ‘들판에서’(작곡 강문길)다. “북한은 단소 음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소금보다 단소를 선호할 정도죠. 세 곡 모두 단소 개량과 관련된 창작이 활발하던 1970~1980년대에 작곡됐습니다. ‘초소의 봄’에는 산조의 꺾는음·떠는음 등 기본적인 시김새와 전통 장단이 적용돼 있고, ‘봄소식’은 시나위와 비슷해요. 언뜻 들으면 전통음악이라고 생각할 정도죠. ‘들판에서’는 현재 국악방송 라디오에 가장 많이 신청되는 단소 작품이라네요.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재밌고 기교적인 요소가 많아 개량단소의 매력을 잘 보여주지요.”

운지법이 다른 단소 셋

정악단소는 왼손 엄지로 뒷지공, 검지와 중지로 2·3공, 오른손 중지로 4공을 짚는다. 5공은 사용하지 않고, 지공을 모두 열었을 때는 오른손 엄지로 악기를 지탱한다. 산조단소는 왼손 검지와 약지로 2·3공을, 오른손 검지와 약지로 4·5공을 막고, 오른손 엄지와 중지로 악기를 잡는다. 정악과 다른 운지법 덕분에 격렬한 요성이 가능하다. 개량단소는 정악단소와 운지법이 같으나 3·4공 사이에 추가된 지공을 왼손 약지로, 가장 아래 지공을 오른손 소지로 막는다.



부는 방향에 따라 소리도 달라요

리드 없이 바로 취구에 숨을 불어넣는 단소·통소는 같은 취법을 가진 횡적 관악기 대금·소금과 같이 묶이곤 한다.

“단소와 대금의 음색은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통소와 대금은 둘 다 청의 울림이 있어 구별이 쉽지 않죠. 자세히 들으면 대금의 청 울림은 웅골지게 뭉쳐 있고, 통소는 좀 더 이완돼 있어요. 소금과 단소도 비슷해요. 소금이 맑고 압축된 날카로운 소리라면, 단소는 조금 더 풍성하고 푸근하죠. 입김과 바람 소리가 직접적으로 섞인 단소 음색이 조금 더 편안하게 와닿아요. 가로로 부는 대금·소금의 경우 관 한쪽이 막혀 있어 소리가 둥근 파형으로 힘차게 휘돌아 나가고, 세로로 부는 단소나 통소는 바람이 직선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글 전윤혜 출판사 '수류산방' 편집자.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월간 '객석' 기자로 활동했으며, 2015 화음평론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강인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 '동백꽃 여인'

예술가를 뒤흔든 세기의 사랑

'춘희' '라 트라비아타' '카멜리아의 여인' 등 여러 이름으로 익숙한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소설은 그 유명세만큼 다양한 예술에 영감이 됐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원작은 '동백꽃 여인'이란 프랑스 소설이다. 과거엔 '춘희'로도 불렸지만 '춘희'는 동백꽃이 아니라 참죽나무를 일본에서 오역한 표현으로, 지금은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원작자는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1824~1895)인데, 맨뒤에 붙은 '피스 fils'는 이름이 아니라 '아들'을 뜻하는 프랑스어다. 그의 부친이 '삼총사' '몽테 크리스토 백작'을 쓴 알렉상드르 뒤마에게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아버지는 뒤마 페르, 아들은 뒤마 피스라 부른다.

뒤마 피스는 1844년 20세 나이에 파리의 한 극장에서 마리 뒤플레시라는 동갑내기 코르티잔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코르티잔은 '고급 창녀'로 번역되곤 하지만 이는 구별돼야 한다. 코르티잔은 후원자로부터 호사스럽게 살 만한 생활비 일체를 받고 그 대가로 공개적인 애인 역할을 하는 직업이니, 하룻밤 화대로 몸을 팔지는 않는다. 뒤플레시스는 뒤마 피스를 만났을 때 이미 연간 10만 프랑(현재의 구매력으로 최소 15억 원 추정)을 지출하는 후원자가 있었다. 돈이 없는 뒤마 피스는 그녀의 집에 비밀리에 얹혀살았다. 그러나 결국 이곳을 떠나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글을 쓰는 부친을 따라다니게 됐고, 1847년 2월 뒤플레시스가 폐병으로 죽은 직후 파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와 나눈 짧은 사랑의 기억에 픽션을 더한 소설 '동백꽃 여인' *La Dame aux Camélias* (1848)으로 필명을 날리고 돈도 벌었다. 두 사람이 만나 몇 개월간 함께 지냈다는 얘기는 뒤마 피스의 체험담이지만, 이별과 재회, 그리고 다시 이별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픽션이다. 여주인공이 폐병으로 죽는 마지막 부분 역시 뒤플레시스의 죽음을 뒤마 피스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허구성 때문에 두 주인공의 이름도 마르그리트 고티에와 아르망 뒤발로 바뀌었다.

소설은 어떤 화자가 마르그리트의 유품을 낙찰받은 후에 만난 아르망 뒤발의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

된다. 이는 프랑스 문학의 일반화된 방식으로, 작품의 모티프로 이용된 18세기 소설 '마농'이나 19세기 중반 소설 '카르멘'도 유사한 구도로 돼 있다.

두 아내를 향한 사랑을 담은 베르디의 오페라

한편 1840년 27세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베르디에게 다가온 새로운 사랑은 소프라노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였다. 그녀는 동료 테너, 그다음에는 라스칼라 극장장과의 관계에서 사생아를 낳이나 낳은 여자였다. 주변 사람들은 베르디와 그녀의 결혼을 반대했고, 이에 실망한 스트레포니는 일찍 은퇴를 선언하고 자신을 비웃는 이탈리아를 떠나 파리에서 성악 교사로 살아가고자 결심한다. 그녀를 잊지 못한 베르디는 1847년 파리 공연을 계기로 스트레포니와 다시 만나 약 2년간 파리를 중심으로 생활했다. 세계 각지를 다니다 1851년 12월부터 몇 달간 다시 파리에서 만난 베르디와 스트레포니는 뒤마 피스의 소설 '동백꽃 여인'으로 제작한 연극을 보게 되는데, 관람 내내 두 사람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고 한다. 영혼은 아름다우나 육체가 타락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받는 여인의 이야기이니 스트레포니와 같은 처지 아닌가! 베르디는 숙소로 돌아와 대본도 없이 곡을 쓰기 시작했을 정도로 뒤마 피스의 소설에 크게 감동했다고 회고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소설을 오페라로 만들 때 줄거리를 축약하거나 부분 개작하는 경우는 많아도 주인공의 이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인공 이름은 비올레타 발레리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베르디의 슬픈 개인사가 반영돼 있다. 유년기의 두 자식을 잃고, 26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한 첫 아내의 이름이 마르게리타 바레치였던 것.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의 표기 차이가 있지만 원작의 주인공 마르그리트와 이름이 같다. 즉, 베르디는 스트레포니를 위한 오페라를 쓰





기는 했으나, 원작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면 죽은 아내를 기리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을 것이고, 오페라와 소설의 제목이 다른 것도 그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베르디는 연극을 볼 때부터 죽은 아내를 떠올렸을 것이다.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비올레타가 자신의 물건을 파는 2막 1장의 내용은 베르디가 유명해지기 전, 부친이 준 패물을 팔아서 생활비를 낸 아내 마르게리타의 행적과 겹친다. 그렇다면 이 오페라에는 과거와 미래의 두 아내에 대한 베르디의 연민과 사랑이 동시에 담긴 것이 아닐까. 명작이 탄생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상황이다. 테너와 소프라노가 균형을 이루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형에 비해 소프라노 쪽으로 균형추가 훨씬 기울 ‘프리마 돈나’ 오페라인 것도 이러한 탄생 배경을 생각하면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원작 소설을 많이 압축했다. 이보다는 덜 알려졌고 원작에 더욱 충실한 발레와 비교해보자.

쇼팽·리스트의 낭만을 입은 발레 두 편

발레로 만들어진 ‘동백꽃 여인’으로는 1973년부터 44년째 함부르크 발레를 이끄는 존 노이마이어의 동명 작품이 유명하다. 그러나 원작 소설과 구별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또 하나의 제목 ‘카멜리아의 여인’으로 표시해 소개하겠다. 1978년 초연된 이 발레는 함부르크 발레 이전에 노

이마이어가 무용수로 몸담은 슈투트가르트 발레를 위해 만들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를 드라마발레의 본산으로 키워낸 존 크랭코가 갑작스럽게 타계한 지 3년, 예술감독이 된 발레리나 마르시아 하이데는 그때까지 안무 경험이 짧았음으로 동료인 노이마이어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뒤마 피스의 소설로 발레를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이데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새 작품의 소재를 결정해버렸다. 아무튼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레퍼토리로 시작된 작품인 만큼 이 발레단의 스타였던 강수진의 대표작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노이마이어는 베르디의 오페라를 편곡해 음악을 만들려던 생각을 금방 포기했다. 독자적 발레가 아닌 오페라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받을 것을 우려한 탓이다. 대신 프랑스 작곡가 중에서 적당한 대상을 찾다가 실패하고, 결국 폴란드 출신이지만 소설의 배경인 1840년대 파리 살롱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 프레데리크 쇼팽을 선택했다. 음악이 나오지 않는 프롤로그에 이어 1막이 시작되면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부터 3악장이 30분 이상 이어진다. 이 밖에 피아노 소나타 3번, 피아노 협주곡 1번, 발라드 1번,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즈 등이 발레에 중요하게 사용된 음악이다. 2막 첫 장면을 장식하는 여러 왈츠와 에코세즈, 프렐류드 등은 아예 무대 위에서 실제 피아노로 연주하도록 지시돼 있다.



02

오페라에 비해 발레는 원작에 충실하다. 주인공 이름도 소설 그대로 마르그리트와 아르망으로 표기한다. 플래시백 기법이 반복되는 것은 원작이 아르망의 회고 형식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며, 아르망의 부친인 무슈 뒤발의 회고도 추가해 이원적인 관점을 택했다.

프롤로그는 유품 경매가 이뤄지는 마르그리트의 집에서 시작된다. 아르망과 무슈 뒤발이 그녀의 중요한 유품을 하나씩 살펴보는 회상에 젖어든다. 발레에선 프랑스 연애소설인 아베 프레보의 '마농 레스코'가 중요한 모티프로 사용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극장엔 '마농 레스코'가 공연 중이고, 마르그리트가 죽음에 임박해 마지막으로 외출하는 곳도 같은 연극이 상연 중인 극장이다. 오페라에는 빠져 있지만, 연인의 결을 떠났다 잠깐 돌아온 마르그리트가 다시 떠나는 이유 역시 그녀가 마농 레스코와 데 그리외의 비극적 운명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마농은 항상 마르그리트 곁에 망령처럼 떠돈다. 오페라에선 비올레타가 죽음을 맞이할 때 알프레도는 물론 그의 부친까지 그녀의 침상으로 달려오지만, 발레에서는 원작 소설처럼 마르그리트가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것으로 처리된다. 물론 그녀의 일기를 들고 침통해하는 아르망의 모습이 덧붙여진다.

같은 소설을 토대로 한 발레로 영국 로열 발레의 스타 마고 폰테인과 루돌프 누레예프를 위한 프레더릭 애슈턴의 '마르그리트와 아르망'(1963)도 유명하다. 음악은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사용하며 공연 시간은 30분 남짓이다. 흥미로운 것은 리스트가 한때 마리 뒤플레시스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이다. 마리 다구 백작부인과 헤어진 후 파리로 온 리스트에게 뒤플레시스는 짧게 스쳐 간 여인 중 한 명이었던겠지만 그녀의 부음을 듣자 "가련한 마리!"라며 슬픔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글 유형종 발레·오페라·클래식 음악 등 공연예술 전반에 관한 집필과 해설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클래식 음악감상실 '무지크바움' 대표로 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안나 네트레코(비올레타)·롤란도 비아손(알프레도)·토머스 햄프슨(제르몽) | 주세페 베르디(음악) | 빌리 데커(연출) | 카를로 리치(지휘)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 2005



발레 '카멜리아의 여인'

아녜스 르테스튀(마르그리트)·스테판 빌리웅(아르망)·미카엘 데나르트(뒤발) | 존 노이마이어(안무) | 프레데리크 쇼팽(음악) | 미하엘 슈미츠도르프(지휘) | 파리 오페라 발레 | 2008

고별공연을 앞두고

새로움을 위한 소통

지난 7월에 처음 만난 음악가 12명이 벌써
떠날 날을 받아두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 참가하며
한국 관객을 만난 소감을 들어본다.

제 이름은 다니알 와스티입니다. 파키스탄 최고의 음악대
학 중 하나인 국립 공연예술대학교 음악학 교수로 재직 중
입니다. 저는 '악기들의 사자'라 불리는 파키스탄의 전통악
기 루바브 연주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음악가로 산다는
것은 경제적 풍족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에 파키스
탄 부모 대다수는 자녀가 음악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
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 의사를 존중하고 지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방송·영화제작 분야를 공부
해 학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저에게 더욱 매력적이면서 저
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 인
생에서 크나큰 행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게 음악에 대
한 열정과 믿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물론 음악



에 대한 열정이 식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동반자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새로운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졌습니다.

2017년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프로그램에는 9개국 음악가 1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은 무척 어렵기도 하지만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것을 배웠고, 이 경험은 제가 더 나은 음악가로 거듭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문화동반자들은 한국 전통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의 민속음악을 선보이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공연했습니다. 한국 창작음악인 '고구려의 혼'(작곡 홍동기)과 '민요 연곡',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의 양금 협주곡 등

을 연주했는데, 처음 만나는 악기들과 협주하기 위해 서로의 악기를 파악하고 음색을 맞춰가는 준비 과정이 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음악적 도전인 만큼 재미있고 보람찼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인원인 이상준 음악감독의 훌륭한 지도와 국립극장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연주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전통의상을 입고 연주했는데, 한국음악과 자국 음악을 한국 관객들 앞에서 국가를 대표해 연주한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이 참여했는데, 우리 공연 전에 연주한 일본 음악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올라 연주한 말레이시아 밴드의 공연도 참 좋았습니다. 세계의 훌륭한 음악가들과 무대를 공유하고, 때로는 관객이 되어 그들의 연주를 즐기는 일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다. 10월 15일에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벤트인 2017 서울아리랑페스티벌 폐막식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음악 '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이 페스티벌은 3일간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위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아리랑페스티벌은 그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축제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된 아리랑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곳곳에서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이벤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공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문화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국의 음악과 한국음악을 여러 나라 악기로 연주하는 이 공연은 감동과 재미, 그리고 의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공연을 위해 남은 기간을 더 열정적으로 보낼 것입니다.

글 다니알 와스티(Daniyal Wasti) 2017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사업 파키스탄 참가자



2017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특별공연 'Better Together'

르완다·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아제르바이잔·우간다·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파키스탄에서 온 12명의 개성 있는 연주자들이 자국의 악기로 한국음악을 연주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색적인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펼친다.

일시 2017.11.10(금) 오후 8시

장소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초대

문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24

외국인국악아카데미 수강생 코예요·실바 더 큰 울림을 기다리며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장구 소리가 사랑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연주가 이곳, 한국에서 시작됐다.

마르셀로 다니엘 마가냐 코예요 Marcelo Daniel Magaña Coello와 마리아 페르난다 실바 Maria Fernanda Silva는 장구에 폭 빠진 다정한 외국인 커플이다. 실바는 지난해 친구를 통해 국립극장 외국인국악아카데미를 알게 됐다. 평소 장구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녀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곧장 장구 강좌 수강을 신청했다. 수업에 빠르게 적응해 재미있게 연주하는 그녀를 곁에서 지켜보던 코예요도 고민 끝에 올해 3월 장구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2017년 하반기 들어 장구반이 사물놀이반으로 개편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사물놀이 수강생이 됐다. 코예요는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실바를 보면서 저도 꼭 한 번 한국 전통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업에 참여한 뒤로 장구에 대한 애정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어요. 한국 전통악기 소리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종종 수업 시간보다 일찍 교육실에 와서 정신없이 연습하기도 해요.(웃음) 요즘엔 실바가 인턴십으로 바빠서 잘 만나지 못하는데, 수업 덕분에 매주 월요일이면 좋아하는 장구를 연주하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기뻐요.”

실바에게 장구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악기 다루는 데 서툴던 그녀는 장구 수업 첫날, 난생처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제 그녀는 힘들 때마다 장구를 먼저 찾는다. 힘차게 두드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릴 뿐만 아니라, 장구의 울림에 빠져 부정적인 생각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물놀이는 각 악기의 고유한 소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매력적이에요. 수업시간에 다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면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사물놀이 공연을 볼 때도 연주자의 행복함이 생생하게 와닿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걸 보면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녀와 달리 코예요는 오랫동안 드럼·기타 등 여

러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해왔다. 그러나 연주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건 익숙하지 않은 터라 초반에는 사물놀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연세호 강사(국립국악관현악단 타악 수석)의 지도에 따라 꾸준히 연습하니 어느새 리듬에 맞춰 흥겹게 춤까지 추는 여유가 생겼다. 그는 지도 강사의 배려와 열정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연세호 선생님의 수업은 특별해요.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몸으로 설명해주거든요.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섬세하게 잡아주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직접 시범으로 깨닫게 해주죠. 또 저희처럼 여러 번 수강한 학생을 위해선 좀 더 어려운 테크닉을 알려주시곤 해요. 똑같은 리듬이지만 다른 스타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국립극장 외국인국악아카데미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 공연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실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7년 하반기에는 사물놀이·한국무용·판소리반이 개설돼 8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기초부터 꼼꼼히 익힐 수 있는 커리큘럼 덕에 수강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2주에 걸친 수업이 마무리되면 수강생들은 수료공연을 올린다.

실바는 처음 외국인국악아카데미를 수강하던 당시 독한 감기에 걸려 수료공연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몇 주 전부터 고대하던 무대라 선생님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하던 중에 눈물을 펄펄 쏟을 정도로 속상했다고. 세찬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 두 번째 수료공연에선 연인과 함께 무대에 올라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코예요 역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며 그날을 회상했다.

“많은 관객이 모인 무대에 오른 건 처음이라 무척 떨렸어요. 선생님이 곁에서 응원해주셔서 긴장을 풀 수 있었죠. 무대에서 바라본 풍경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요. 꿈같은 순간에 실바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고국 엘살바도르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장구

를 연주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엘살바도르에는 한국 전통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이웃들에게 장구의 기본기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나아가 취약한 교육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실바 역시 교육 분야에 종사하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그녀는 연극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작은 목표다. 아이들이 연극에 참여하면서 상상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자신이 구상하는 프로그램의 포인트라고 한다. 연기 연습에도 매진해 언젠가 배우로 당당히 무대에 서고 싶다.

“장구를 배우기 전에 외국인국악아카데미 한국무용 강좌도 수강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한 번, 올해 초에 한 번씩 배웠죠. 한국무용이 연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사할 때의 호흡이나 무대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시간이 된다면 한국무용 수업도 다시 듣고 싶어요.”

두 사람은 ‘어디서든 한국이 생각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고 싶은 일과 소중한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들의 살뜰한 마음이 악기 연주에도 온전히 묻어날 것 같다.

글 박효린 좋아하는 것을 힘껏 좋아하기 위해 이불 밖으로 나온 기획자

사진 김창제

국립극장 외국인국악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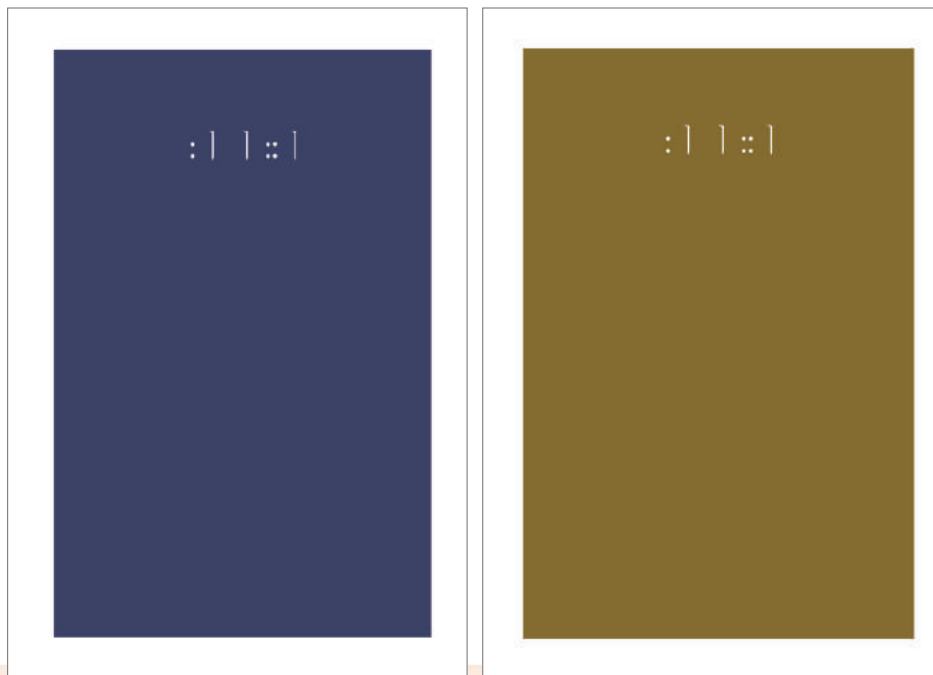
외국인국악아카데미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공연예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전통예술 실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연 2회(상·하반기) 각 12주 과정으로 개설돼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2017년 하반기에는 사물놀이·한국무용·판소리 강좌가 개설됐으며, 전체 수업의 70퍼센트 이상 출석하면 국립극장장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오는 11월 18일, 2017년 하반기 수료공연이 하늘극장에서 진행되니 강좌에 관심이 있다면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21



가치 있는 발언을 위한 작고 단단한 의기투합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며 독립출판의 문턱도 조금 낮아졌다.
많은 잡지가 나왔으나 '꾸준히' '제 개성을 내는' 것은 많지 않다. 심지 단단한 독립잡지 3종을 소개한다.



문예지 '영향력'

은미향·김정애 엮음, 2016년 창간, 계간지

왜 이름을 '영향력'이라고 지었을까. 처음 단순하게 떠오른 생각은 '무명의 작가들이 작가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싶었나보다'였다. 그래서 잡지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 작가의 영향력은 독자에게서 오니까. 어떻게든 독자를 만나고 싶어서 만들었나? 그러나 사실 이들이 말하는 영향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영향력을 미치려 합니다. 책을 덮은 후 눈을 감는다거나,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거나, 자주 피우지 않는 담배를 한 개비 피운다거나, 밀렸던 일기를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

는다거나, 훌든 콜필드처럼 작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진다거나, 새벽의 냄새가 맡고 싶어진다거나, 옷을 챙겨 입고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 온다거나, 하는 아주 작은 영향력입니다." 작다고 하찮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의 영향력.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서 숨 돌리듯 글을 쓰던 이들은 '키친 테이블 노블'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것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글을 뜻하는 말임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그냥 쓰던 글을,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졌다고. 그런 마음이 든 게 자신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글이 꼭 소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은 '키친 테이블 라이팅 계간지'를 만들기로 하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글을 올려 책을 제작할 자금과 편집인과 작가를 모았다. '영향력'은 2016년 초에 창간해, 벌써 일곱 번째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10월 셋째 주 기준) 이들의 영향력도 조금씩 커지는 중이다.

그 영향력은 모두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향력이고, 작가와 독자들 간에, 작가와 작가들 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향력이다. 이 작고 끈질긴 책이 미칠 영향이 기대된다.

건축잡지 '매거진 파노라마'

매거진 파노라마 편집부 엮음, 2013년 창간, 연간지
누구나 집에 살지만,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다. 전문용어가 뽁뽁하게 들어간 건축 이야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떠돈다. 하지만 누구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건축잡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생각해 그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 현실화한 건 참 좋은 일이다.

이들이 다루는 것은 서울이고, 이용하는 것은 버스다. 이들은 버스를 "입장료 1,250원의 건축 갤러리"라고 한다. 매호 버스를 하나 고르고, 그 버스를 타고 창밖에 펼쳐지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흥미롭다면 내려서 자세히 살펴보기도 한다. 잡지를 한 손에 들고 버스를 따라 타도 좋다. 그러지 않더라도 큼직큼직한 사진들을 보노라면 서울 구경하기 제법 좋다.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세나 평수, 역사나 기법을 넘어서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우리 개인사에서, 일상에서도 빠질 수 없는 '장소'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2013년 창간돼 연 2회 발행을 거쳐 현재 5호까지 나와 있는 '매거진 파노라마'는 호를 거듭하면서 더욱 풍성한 모습을 보여준다. 역사가 쌓인 건물들이 그러하듯이 사람 냄새는 짙어지고 사연은 거듭된다. 5호가 다루는 버스는 2016번(지선)이다. '지금'을 다루기 위해, 그해의 연도와 같은 번호의 버스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 이후에는 또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어떤 '과거'를 보여줄까. 궁금하다.



영화잡지 '아노anno.'

아노 운영진 엮음, 2013년 창간, 비정기 발행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잡지는 그동안 무수히 발행됐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영화잡지가 필요한가? '아노anno.'를 만드는 이들은 필요하다, 무척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영화잡지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들이 보기에 지금의 영화잡지는 최신 영화를 빠르게 소개하기에 바쁘다. 영화는 한번 태어나면 오래오래 사랑받고, 수많은 주석이 붙고, 위대함이 거듭 칭송돼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잡지가 없다.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은 영화에 주석을 붙임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심한다. 'anno.'는 '주석'을 뜻하는 단어 'annotation'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이들이 보기에 영화에 필요한 것은 비평이 아니라 주석이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좋은 영화에 대한 깊고 긴 글이다. 그러면서도 새롭고 젊은 글이다. 시류를 타지는 않지만, 현재를 반영한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노' 과월호는 시효성이 지난 책이 아니다. 영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 한 권에 하나씩 다룬다. '몽타주' '사운드' '미장센' '배우' '스토리'...

2012년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 '아노'는 필자를 모집하고, 원고도 마감하고, 디자인도 거의 끝난 시점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과정 내내 "시대를 막론하고 논할 가치가 있는 모든 영화를 다뤄왔다"라고 자부하는 이들. 상업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가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이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은 의기를 투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글 박사 북 칼럼니스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책과 문화를 소개해왔다. 저서로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 등이 있다.



제8회 두산연강예술상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초대회장
故 연강(蓮崗)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공연·미술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DOOSAN ARTIST AWARD

공연부문

이연주

미술부문

권하윤

상금 및 부상

(수상자별 1억 원 내외)

공연부문

신작 공연 제작 지원
아티스트 멘토링 프로그램
작품 워크숍, 세미나
상금 3천만 원

미술부문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항공권/생활비 포함)
두산갤러리 서울/뉴욕 전시
아티스트 프로모션
상금 1천만 원

DOOSAN ART CENTER

YONKANG Hall | Space111 | DOOSAN Gallery Seoul | DOOSAN Gallery New York | DOOSAN Residency New York
doosanartcenter.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11월의 주요 소식



국립극장 공식 홈페이지 새 단장 마쳐

국립극장 공식 홈페이지(ntok.go.kr)가 새 단장을 마치고 11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립극장은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진행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홈페이지는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적용해 PC는 물론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크기의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웹과 모바일웹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기존 모바일 서비스가 까다로운 검증 절차로 인해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를 개발했다. 스마트폰으로 예매부터 결제, 취소까지 전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웹표준 및 웹접근성을 준수함으로써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는 공연, 교육, 이용안내, 소식·참여, 대관·대여, 국립극장 소개, 빠른예매로 구성됐다. 메인 페이지에선 국립극장 내 진행되는 공연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맞춤검색' 기능을 통해 기간별·단체별·극장별 조건에 맞는 공연을 검색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빠른예매'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정보 페이지 연결 없이 바로 예매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웹전단 형식의 공연 정보를 텍스트 기반으로 개선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국립극장의 콘텐츠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국립극장 월간 '미르'는 기존처럼 전체 페이지를 PDF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기사를 열람하고 URL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새로운 국립극장 홈페이지는 다양한 콘텐츠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사용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것이다.



2017 서울아트마켓 참가한 국립극장

국립극장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17 서울아트마켓에 참가했다. 2005년 시작돼 올해 13회째를 맞은 서울아트마켓(PAMS(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은 국내외 공연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다. 우수 공연예술 작품의 쇼케이스, 단체와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전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열린다. 올해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 권역으로 선정, 2,800여 명의 국내외 공연예술 전문가가 참여했다. 국립극장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 마련된 부스전시에 참여해 2012년부터 진행한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작품을 비롯한 역점 사업을 국내외 공연예술 관계자에게 소개했다. 부스를 방문한 해외 공연예술 관계자들은 특히 전속단체의 향후 해외공연 일정과 새로운 프로덕션 제작에 관심을 보였다. 국립극장은 이번 서울아트마켓 부스전시가 향후 국내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PyeongChang 2018™



알파인 스키 Alpine Skiing



바이애슬론 Biathlon



크로스컨트리 스키 Cross-Country Skiing



프리스타일 스키 Freestyle Skiing



노르딕 복합 Nordic Combined



스키점프 Ski Jumping



스노보드 Snowboard



봅슬레이 Bobsleigh



루지 Luge



스켈레톤 Skeleton



컬링 Curling



피겨 스케이팅 Figure Skating



아이스 하키 Ice Hockey



쇼트트랙 Short Track Speed Skating



스피드 스케이팅 Speed Skating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

국립무용단 총무 변승희 엄마의 마음으로

인터뷰 내내 그녀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더 많이 걱정하고 아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직원으로서 극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극장사람들’ 인터뷰를 진행할 때면 으레 던지는 질문에 그녀는 여태껏 보지 못한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고민에 빠진다.

“극장에 바라는 거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또다시 깊은 침묵) 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고 보니 늘 단원들 걱정만 했던 것 같네요.”

남다른 ‘기력지’ 덕에 종종 국립무용단 단원이 아닐까 착각하게 만드는 그녀. 2012년 5월부터 국립무용단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변승희 총무다. 대학 때까지 한국무용을 전공했고, 실은 발레와 현대무용을 더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어떻게 ‘총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총무로서 제 업무는 공연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예요.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단원들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이들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고, 복무 상황을 관리하는 등 모든 절차의 중간에서 있

습니다. 단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줘야 하는 자리이면서 형평성 등의 이유로 업무를 같이 처리해야 하는 자리죠. 따로 비서를 두지 않는 예술감독님을 보좌해 단체 구성원과 예술감독님 사이를 유연하게 잇는 역할도 합니다. 아참, 현재 국립무용단에는 인턴단원이 여섯 명 있는데, 이들의 인사와 급여 업무도 맡고 있어요. 해외 투어를 갈 때면 통상 ‘매니저manager’로 불리고요. 책임감이 만만치 않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하던 스물다섯 나이에 국립극장에 입사했다. 총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들어왔지만 시작은 만만치 않았다.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올해로 5년 차인데, 3년 차 될 때까지 사직서를 세 번 썼을 정도니까요. 전환점으로 삼을 만한 경우가 몇 번 있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일이 너무 많고 정신없어서 사직서 내는 걸 깜빡한 탓에 다행히(!)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웃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힘들었던 시간을 반추하는 그녀의 표정은 오히

려 말강다. 일이 점차 손에 익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생각도 많아진다고 했다. 최근 들어 관심을 두는 이슈는 예술가 ‘복지’다.

“인턴단원의 경우는 개인정보부터 급여까지 관리하고 있다 보니 특히나 많이 생각하게 되죠.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데 사정상 2, 3년 지나 헤어져야 할 때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전에 모신 윤성주 예술감독님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을 지내셨는데, 그래서인지 예술가의 복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셨어요. 저 역시 정년에 이르러 퇴임하는 무용수들을 보면서, 그들이 몇십 년간 쌓은 경험을 활용할 통로가 마땅히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대에서 내려온 예술가들이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활동이 다시 예술계 전반에 의미 있게 작용하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늘 자신보다 다른 이를 우선으로 염두에 두는 일. 그것이 총무가 갖춰야 할 자질일까.

“공연을 보고 나면 힘들었던 게 색 내내려요. 거기서 힘을 얻어 꾸준히 일하는 것 같아요. 업무로 갈등을 겪은 단원이 무대에서 누구보다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연습 중 부상당해 걱정하던 단원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정말로 뿌듯해요. 저는 아이가 없어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애틍할까요 싶어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이러다 너무나 모범적인 직원 인터뷰가 돼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던 찰나. 이제가 떠올랐다는 듯 그녀가 짧은 탄식을 내뿜었다. “저뿐만 아니라 전속단체 총무들의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라서 힘든 점이 정말 많은데, 사실 가려진 존재라 저희를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인터뷰를 통해 ‘총무’의 존재와 하는 일만 알아주셔도… 더 바랄 나위가 없겠네요.”

이제나저제나 한결같은 마음, 그녀가 지치지 않고 일하는 비결이지 싶다.

글 김태희 국립극장 홍보팀 | 사진 전강인



극:적 劇:積 극이 쌓이는 공간 1973-2017

극장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치게 되는 무대 상수 한편.
제작기 다른 크기의 사각 박스가
이곳저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어를 떠나는 길,
특수한 조명기를 실어놨을까요?
그 고운 옷감 상할세라 무대의상을 차곡차곡 담았을까요?
알루미늄이나 나무 혹은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주문 제작되는
이 튼튼한 박스에 가만가만 무대 용품을 담고
지게차로 컨테이너에 옮기면
이동 준비 완료.
국립극장의 전국화·세계화가 진행 중인 이번 시즌,
박스들은 싱가포르·프랑스·울산·베트남으로
쉴 새 없는 여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월간「미르」정기구독 안내

국립극장이 발간하는 공연예술교양지「미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미르」발간을 앞두고,
독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재구독 의사 확인 및 주소 현행화를 실시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재구독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기한 내 알려주지 않으시면 구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구독 신청 및 해지 방법

신청방법 이메일(magazine@ntok.go.kr) 혹은 독자엽서

작성내용 ① 재구독 신청/해지 여부
② 성함과 연락처,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신청기한 2017년 12월 20일까지

「미르」는 국립극장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수령 가능하며,
국립극장 홈페이지(ntok.go.kr)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 알차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국립극장 홍보팀 02-2280-5831 | magazine@ntok.go.kr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휴대전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 정기구독 신청
- ☐ 정기구독 주소 변경
- ☐ 정기구독 해지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12.31

서울 중앙우체국승인
제3770호

국립극장 **미르**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월간「미르」담당자 앞

0

4

6

2

1



11월호 독자의견

의견을 보내 주시면 추첨하여 공연 초대권 등 선물을 드립니다.

01 「미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02 이번 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03 「미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